

△ 2002년도 표어 △

세 지경을 넓히리라

순복음 Life

제11호

발행일 2002년 4월 10일

발행인 : 한승권

위원장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4월의 기도>

나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배병철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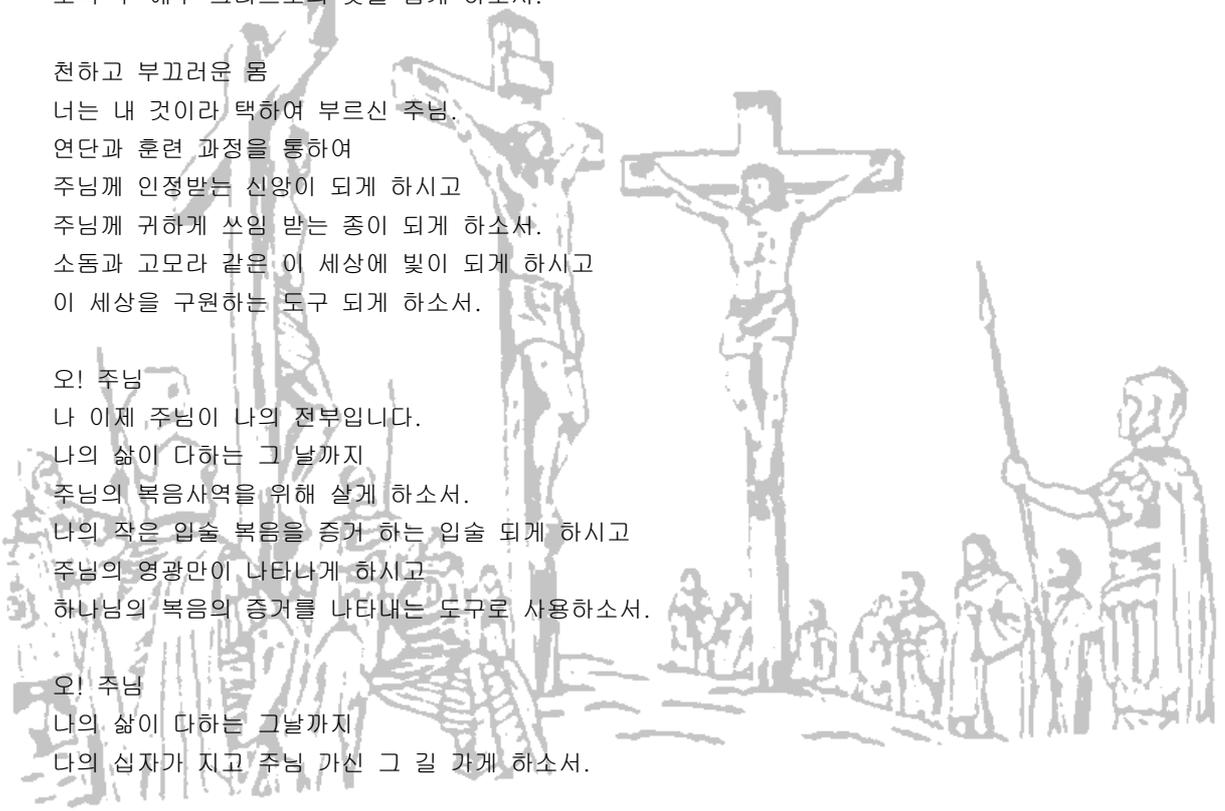
나의 질고를 지시고,
나의 죄와 허물로 고난당하신 주님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의 풍성하고, 그 크신 은혜입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 참회합니다.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소서.
세상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소서.

천하고 부끄러운 몸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부르신 주님.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나 이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주님의 복음사역을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작은 입술 복음을 증거 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오! 주님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가게 하소서.





EQ란 무엇까요?

Emotional Quotient의 약자인 감정지수 EQ는 지능지수 IQ와는 다른 의미에서 아이의 능력을 재는 잣대로 쓰인다. IQ가 똑똑한 아이를 상징하는 것과 달리 EQ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 남들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이끄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대개 EQ가 높은 사람은 정감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어디서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 또 많은 사람과 쉽게 잘 사귀어 인기가 좋은 편이다.

반면 EQ가 낮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줄 모르고 쉽게 흥분하며 인간관계 또한 원만하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EQ를 높이려면...

EQ는 0~5세 정도에 거의 대부분 형성된다. 따라서 어릴 적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아이의 EQ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부모가 항상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핀 아이는 커서도 자긍심이 높고 희망적인 아이가 되지만, 사랑 없이 불안정하게 자란 아이는 자라서도 정서가 불안정해지기 쉽다.

특히 생후 36개월 이전에 부모로부터 푸대접이나 상처를 받게 되면 커서도 '나는 버림 받아 마땅하다'라는 식의 어두운 정서가 아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 따라서 EQ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 우선 부모의 EQ부터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한다.

EQ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0~1세 사이이다.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기가 울음이나 미소로 의사 표시를 할 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대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세상에 대한 신뢰감과 애착을 가지며 EQ 높은 아이가 될 수 있다.

EQ 높은 아이는?

아이와 엄마와의 감정 교류가 얼마나 원만히 이뤄지냐에 따라 아이의 EQ는 결정된다. 무엇보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아이의 의사 표현 능력을 길러 주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 * 감정을 스스로 통제, 관리할 줄 아는 아이
- *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따를 줄 아는 아이
- *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어 EQ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EQ 음식은?

이유 전의 어린 아기에게 모유보다 더 좋은 EQ 음식은 없다. 모유엔 아기의 두뇌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시작한 아기라면 철분이 다량 함유된 계란 노른자나 간, 쇠고기 등을 이용해 만든 음식이 좋다.

시중에 판매하는 이유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작은 양이라 해도 향료나 색소를 아이에게 먹이는 셈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제철 식품을 엄마가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시기의 가장 좋은 EQ음식이다.

<다음 호에 계속>

알뜰살뜰 “아나바다”

1. 케जू얼 점퍼 - 사용기간 3년, 색상 검정, 사이즈 중학교 남학생용 / 가격 : 1,000원	제공자 : 현덕규집사님
2. 유아 장난감 - 3,4세용, 미키제품, 미개봉상태, 말뚝에 고리넣기 놀이 / 가격 : 2,500원	제공자 : 문서발간위원회
3. 여자아이용 패딩조끼 - 5,6세용, 빨강색, 상태A급 / 가격 : 1,000원	제공자 : 박기숙 성도님
4. 여자아이용 원피스 - 5세용, 빨강색, 앞치마가 이쁘게 달렸어요 / 가격 : 900원	제공자 : 박기숙 성도님

「하나님은 성도님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며 현실입니다. 건강은 5복중 하나이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면서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삶의 대 원칙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런 대원칙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자고 증거 하겠습니까.

1.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습니다(고전 3:16).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게 됩니다. 몸은 생명의 장소인데, 건강하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몸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며 질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먹는 것이라고 무분별하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운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적당량의 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잠 4:23) 하셨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몸의 균형과 생활의 흐름이 달라 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평강을 가지고 오며 기쁨을 얻게 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둘째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풍부해집니다. 흐뭇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3.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교제는 친구를 얻게 하고, 세상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물질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에게서 교감할 수 있는 정과 사랑입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특정인만의 교제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는 모임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건전한 교제는 모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셋째

는 자신의 주장 주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부딪치는 강함은 적대감을 만들고 골을 깊게 만듭니다.



4.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건강한 인생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질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며 한계의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움직이면 죄성만 드러나게 되고 세상적 모습에 붙잡히게 됩니다.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예배, 기도, 절제, 보살핌, 선교, 찬양, 영적묵상, 섬김 등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경건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5. 화목한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홀로 존재한다 하여도 곧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최소 단위가 가정입니다. 나 외에 다른 가족이 더불어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베푸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간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며 배려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삽시다.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한 것은 다른 병약한 것으로 인해 결국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몸, 마음, 영혼, 생각, 말, 의식, 양식, 문화, 습관, 전통 등이 모두 건강하도록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유를 진한 맛으로 만들려면....

진한 우유를 만들려면 냉동실에 넣어 얼린 후 꺼내서 반쯤 해동시킨다.
우유속의 수분이 아직 얼음 상태에서 녹지 않아 맛이 진해진다.

상한 우유로 걸레질....

날짜가 오래되어 변질되었다 싶은 우유가 있으면 그냥 버리지 말고 마루나 가구들을 닦는데 이용한다. 광택이 아주 잘 날 것이다. 우유는 신선한 동안에는 산성과 알칼리성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오래되어 상한 것은 암모니아 등이 발생하여 알칼리성만이 남게 된다. 세제는 약알칼리성이라든가 중성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알칼리성의 변질된 우유에는 더러움을 제거해 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분 때문에 광택까지 낼 수 있다

굳어진 햄을 우유로...

햄을 오래 보관하여 굳어졌을 때는 우유에 얼마동안 담가놓으면 햄과 베이컨이 우유를 흡수하여, 굳어진 부분이 연해지고, 게다가 본래의 맛 그대로, 신선함을 되찾는다.
그릇에 남은 우유에는 햄과 베이컨의 특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스투 등에 다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버릴 필요가 없다.

먹던 우유로 소파손질을...

가죽소파는 매일 청소하실 때 마른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 크리너 사용이 부담스럽다면 우유를 걸레에 묻혀 닦으신 후 다시 마른걸레로 물기가 없게 닦아주시면 좋다. 대신 많이 해야 한다. 여러 번에 걸쳐 닦으면 효과가 나타난다.

- 아버지 자상하면 자녀 성적 좋다 -

옥스퍼드대 40년 연구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아버지는 자녀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옥스퍼드대 자녀양육연구센터가 40여년에 걸쳐 연구한 데 따르면 자녀가 7세 때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 참여한 경우 그 자녀의 훗날 학업성적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1958년 태어난 어린이 1만7천명의 성장과정을 추적한 결과다.
연구보고서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강한 유대관계는 훗날 자녀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또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 참여하면 자녀들이 성장 후 범죄자나 부랑자가 될 가능성도 작아 진다”고 주장했다.
벌거 중인 아버지도 자녀들이 책 읽는 것을 거들어준다든지 숙제를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자녀들을 관리하는 일을 어머니와 나눠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자녀들과 같이 외출하는 것 등이 적극적인 양육 참여행동”이라 고 설명했다.

- 부모와 대화 많은 학생 성적 좋아 -

日 교육연구소 조사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일수록 학교 성적이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베세네 교육연구소가 최근 초등학교 2학년 1천3백57명과 고등학교 2학년 3천1백6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고2만) 실력 테스트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권(평균 60점 이상) 학생일수록 하위권(평균 60점 이하) 학생보다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상위권 학생은 91.6%가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지만, 하위권 학생의 이 비율은 72.2%였다. 그러나 “공부하라”는 말을 매일 듣는 비율은 하위권 학생이 18.9%로 상위권 학생의 14.1%보다 높았다.

♣ 이 달의 추천 신앙서적

책명 : 헌신의 기쁨

저자 : 존 화이트

역자 : 박영민

정가 : 4,500원



Preview

저자는 예수님과 아브라함, 자신의 헌신의 여정

을 통해 진정한 헌신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 귀한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는 성경의 진리를 보여 준다. 그는 헌신에 대한 보상만 강조하거나 그에 따른 고난만 과장하지 않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헌신의 유익과 대가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말미암는 불가피한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조언해 주고 있다.

헌신을 주저하는 이들에게는 결단을, 이미 헌신한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재헌신을 촉구하는 본서는 기쁨과 평안, 신뢰와 친밀함이 충만한 헌신의 길로 당신을 한걸음 더 가까이 인도할 것이다.

저자 소개

남미 IFES의 간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정신 의학자이기도 하다. 또한 세계적인 저술가요 강연자인 그는, The Fight("신앙생활 지침", 생명의 말씀사 역간), The Golden Cow("금송아지", 생명의 말씀사 역간), Daring to Draw Near("하나님께 더 가까이", 엠마오 역간), The Cost of Commitment("헌신의 댓가", 한국 IVP역간), Eros Defiled, The Masks of Melancholy, The Race, When the Spirit comes with Power 등의 여러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현재 캐나다의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으며 Vineyard Christian Fellowship을 돕고 있다.

성경과학

● 해로와 해로 발견자 ●

마우리(Matthew Fontaine Maury / 1806~1873)는 시편을 읽다가 해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오늘날까지 해로 발견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성경 구절은 시편 8편 8절, 107편 23, 24절, 전도서 1장 7절로서 해로와 물의 순환을 기술하고 있다.

루이스(Charles L. Lewis)가 써서 1927년 미 해군 연구소(U.S. Naval Institute)에서 출판한 “해로 발견자, 마우리” 라는 책에는 마우리 일생 동안 일어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전기에 의하면 한때 아파서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던 일이 있었다. 그 때의 그의 아들이 그에게 밤마다 성경을 읽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시편 8편 8절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해로가 있음을 알아냈다. 마우리는 “만일에 하나님께서 해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날 바로 그 해로를 찾으러 가겠다” 고 말했다 한다.

마우리는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특정한 바람과 물의 흐름이 있어서 해로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그는 바람과 바닷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바다가 순환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는 항해 일지를 보고 바람과 해류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하여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그렸는데 이 항로는 국제 협정의 기초가 되었다. 그의 업적으로 인해 해운회사들은 수 천 달러의 비용을 줄이고 사고의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1923년 마우리가 태어난 버지니아주에서는 그에게 탄사를 보내고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와 고쉴에 마우리의 동상을 세웠다. 그의 동상 비문에는 그가 성경을 읽음으로 영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개요

'사울' <שמאל>이라는 이름은 '요청하다, 구하다'라는 어근 쇠알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요구, 요청'이란 의미를 갖는다.

1. 왕이 되기 이전의 사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막내아들의 후손 지파로서 이 지파에서 뒷날 바울이라 칭하는 사울이 나오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 기스가 베냐민 지파인 점으로 보아 그의 집안은 기브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종과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집안이 부요한 지역 인사였음을 시사한다. 왕이 되기 이전 사울의 성품은 적어도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는 예의바른 인물이었으며, 준수하고 뛰어난 용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었다.

2.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사울의 등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대리인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블레셋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神政統治)를 거부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와중에서 블레셋 진영에 빼앗기고 없는 데다가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비의 지위와 명예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을 취하는 부정을 일삼았던 터였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모여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들 같은 왕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하여 B. C. 1020년경에 사울은 이스라엘과 주변 시대 상황으로 말미암아 초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등극하게 된 그의 왕정 출발은 일단 하나님의 허락하에 새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왕으로서 출발한 그의 초기 통치는

성공적이었다. 이스라엘을 고질적으로 괴롭혀 오던 블레셋의 군대를 효과적으로 퇴치하는가 하면 암몬과 아멜렉에 대해서도 응징을 가하여 지파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에게 새 용기와 국가적 자존심을 심어 주었다. 하나님은 초기 이스라엘 왕정의 이 같은 국가관 고취, 단결력 고양에 사울이 적격 인물이었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3. 사울의 몰락

성공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재위 기간 중에 나타나기 시작한 사울의 몰락 징후는 몇 가지 원인들에서 기인한다. 이전 질서의 대변자인 사무엘과의 불화, 권좌 생활에서 생긴 탐욕, 그리고 다윗의 등장 등은 그의 몰락을 가져온 시작이자 귀결점들이다. 겸손하고 성실하던 초기의 사울은 왕이 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인내심 결여와 불순종이라는 면면들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특히 제사장 위치인 사무엘의 직무에 대한 침해는 양자간의 갈등을 가져왔으며, 계속되는 경거망동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퇴위시키도록 하는 계획까지 초래하였다. 더구나 떠오르는 영웅 다윗에 대한 질투와 권력에의 애착은 마침내 그를 무당에 접촉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전장에서 자결케 하는 비극을 불렀다. 하나님께 의해 세워지고 쓰임 받던 사람이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는 비극의 인생이 된 것이다.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든 사역자에게 교훈을 준다. 스스로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 없이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편지

홍성아 집사



사랑하는 배 집사님에게

아름다운 서해 대교를 지나 과천에 다다르면 어느덧 모든 산야는 새로운 새싹이 돌아
나며 작게 움직이는 꿈틀거림이 보이는 듯 생동감이 있습니다.

대 자연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오가며

기도와 찬양 속에 그 길을 달릴 때마다 지나온 세월들이 순간순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혹시 이 사실들이 꿈은 아닐까! 생각도 해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신비스러워서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세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놀랄 뿐입니다.

배집사님, 앞으로 남은 1년여의 세월을 아껴서 질적,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날들로 가꾸어 나가도록 해
요.

하루 24시간을 같이 하면서 진정 온전한 섬김은 얼마 안 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터트릴 때도 많이 있
건만 예전 같지 않게 위로도 해 줄줄 아는 변화되어 가는 당신 모습이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우로서 토론하고 서로에 앞일을 걱정하며 기도 해 줄 때마다 아! 이것이 주 안에서의 부부
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에게 너무 넘치도록 귀한 당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농사일 하라... 운전하라... 공부하라... 지칠 만도 하건만 항상 주님께서 새 힘 주셔서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썸록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답고 신실한 일꾼 되기 위해 앞으로...앞으로...

우리 함께 두 손 꼭 잡고 전진하도록 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 홍 집사가



-엄마의 일기-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밤 눈가에 흘리는 눈물을 누군가 볼까봐 연신 주의를 살폈다.

내일은 내 사랑하는 아들 현이가 소풍을 가는 날이다.

주인집 아줌마에게 사정을 해서 막원을 빌렸다.

김밥 재료를 사고 3000원이 남았다.

아들은 내일도 웃으면서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벌써 애는 일어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김밥을 싸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온다.

혹시나 볼까봐 뒤로 앉았더니 애는 뭘 아는지 밖으로 나간다.

벌써 다 큰 걸까! 낡은거 같잖아 먹었으면 키도 많이 컸을 텐데 볼 거울이 걱정이야.

주인집에선 나가길 원하는 눈치인데 내일은 파출부 자리나 알아봐야겠다.

-아들의 일기-

엄마 오늘도 우셨다.

내일은 뭘 해야 할 텐데 학교 등록금을 안냈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반년만 지나면 졸업인데 자꾸 가슴 아픈게 심해진다.

양호실에 또 가서 진통제를 받아야 하나... 엄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신문배달도 요즘 들어서 하기가 힘들어진다. 뭘 수가 없으니...

-엄마의 일기-

오늘도 아이는 도시락을 조금 남겼다.

매일 김치찌개 싸주니 오늘 저녁은 뭘 먹이나!

-아들의 일기-

어제 저녁에도 엄마에게 등록금 애길 못했다.

간장에 밥 비벼 먹는 내 모습에 어머니가 서럽게 우셨다.

내일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자퇴를 내야겠다.

돈을 벌어 어머니를 내가 모시는 게 낫것 같애.

아버지 제삿날이 내일인데 어머니는 알고 계실까!

-엄마의 일기-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것 같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아들의 일기-

엄마에게 미안하지랄 학교를 그만 두었다.

내일은 신문보급소에 가서 얘기하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다. 몹시 아팠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물도 못 마셨는데 밥을 너무 못 먹어서 그런가! 간장만 먹으면 설사를 하니....

1200만원에 내 장기를 사준다니... 엄마에게는 그냥 주었다고 말해야겠다.

좀더 살고 싶지만, 업랄 너무 힘들어하시다.
내일은 아버지 상소에나 가뵐야겠다.

-엄마의 일기-

아들에게 고기를 사주려고 머리를 잘랐다.
보자기를 쓰고 있는데 아들이 그냥 웅고만 있다. 고기는 먹지도 않고...

-아들의 일기-

오늘 돈을 받았다.
업랄 길거리에서 주었다고 하면 반드시 돌려 드리라고 하실 건데... 당분간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방학을 맞아 친구네 놀러 간다고 하면 업랄 멀으실 것 같다.
편지를 쓰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엄마의 일기-

아들이 방학을 맞아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한다.
날 흔래히 허락했다.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보단 잘 먹을 수 있겠지.
그런데 댜지 모르게...마음이... 아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에이.. 괜한 걱정이겠지..

-아들의 마지막 편지-

어머니께!
정말 사랑해요.
슬퍼하지 마시고, 진지 꼭 챙겨 드세요....
그냥 저 멀리 여행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업랄에게 혼도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에게도 해야죵...
아버지도 반가워 하신키예요.....
눈물은 제가 오늘 다 흘렸에니까요...
어머니 이젠 눈물 흘리지 마세요....
저 백혈병이래요.
수술해도 안 된데요.....
어머니 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세상에든 제 어머니 되어 주세요..
사랑해요... 돈은 제가 선한 일 해서 번거니까 마음껏 쓰시고요.....
먼저 가서 저송해요... 참 저 생각나시면 김밥양갱 맛들어 두세요..
어느 집 보다 맛있어요... 웅지 마시고요.. 꼬북 오래 사시고 오세요..
아들 현이가.....

- 김운형님의 사랑이야기 중에서 -





◆ 목포 해양 농업 박물관을 다녀와서

에스더반 송 다 헤

우리 교회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현장학습으로 해양, 농업 박물관 견학을 목포로 갔었다. 몇 일 전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간간이 진눈개비도 날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너무도 좋은 날씨에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서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운전도 해주시고 가이드 역할도 해 주셨다. 이병철 집사님, 최성재 권찰님도 가계를 단으시고 안전운전을 위해 수고해 주셨다.

우리는 서로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만나자 마자 처음부터 참새 떼처럼 재잘거리기도 하고 시종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어느 차는 찬양을 계속 불러대는 차도 있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처음으로 가보는 목포 길이었다. 3시간 가량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옛날에는 6시간까지도 걸렸다고 하니 참 많이 빨라진 셈이다. 우리는 가면서 쉬기도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을 먹기도 했는데.....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꿀맛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맛일까!

목포에 도착하니 확 트인 바다가 금방이라도 품어 나올 것만 같은 넓은 푸르른 빛이었다. 우리 일행은 먼저 해양박물관을 견학했다. 그곳에서는 수 백년 전에 침몰되었다던 배도 있었고, 보물섬에서 건져냈다는 유물들도 많았다. 바다에 대하여 신기한 모습을 많이 알게 되었고, 어촌 생활에 새로운 모습도 보았다. 우리는 어부들이 하셨던 일을 직접 해보기도 했다. 노를 저어 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물을 직접 접기도 했다. 멋있는 품을 잡고 어학도를 찍기도 했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의 견학하는 모습을 열심히 사진으로 찍어 주셨고 전도사님께서서는 우리를 이끌고 하나씩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다. 두 번째 박물관에서는 바다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산호초와 조개 등을 보았는데 색깔이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예쁜 색깔을 만드셨을까? 신기하고 놀랍기만 했다.

해양 박물관을 너무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우리는 부랴부랴 농업박물관으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께서서 그분들에게 이곳을 견학하려고 당진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들어가게 해 주셨다. 그곳에는 책에서만 보아왔던 쟁기랑, 절구, 디딜방아....그리고 이 다음에 커서 시집갈 때 꼭 타 보고도 싶은 꽃가마도 있었다. 친구들과 널뛰기도 해 보았는데 어설피서 금방 떨어지곤 했다.

우리는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농부아저씨들의 삶의 지혜도 볼 수 있었다. 계속 걸어다녀서 조금은 피곤했지만 운동한다고 생각하며 걸었더니 참을 만 했다. 이번 견학을 통해 공부도 많이 되었고 장거리 여행이었는데도 누구하나 아프거나 멀미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조금은 한다. 그런데 이번처럼 박물관 견학 같은 경우는 드물다. 순복음 중앙교회 주일학교에서의 견학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조그만 욕심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참 즐거운 여행이었다.





[야! 학교가자] 왕따·낙제생 피하기 역설적 처방

새 학기에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왕따가 되거나 학습 부진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등교거부증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새 학기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어떤 충고를 들려줄 수 있을까.

서울 사당동 마음누리 정신과 정찬호(사진.학습부진 전문) 원장으로부터 '내 아이 왕따로 만드는 일곱 가지 방법'과 '내 아이 낙제생 만드는 일곱 가지 방법'을 들어본다. 부모나 학생에게 반면교사(反面教師)의 기회가 되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내 아이 '왕따' 만드는 일곱가지 방법>

1. '척척박사'로 키워라

'잘난 척, 예쁜 척, 착한 척' 이른바 3척은 왕따가 되는 기본 자세다. 부모는 자녀가 그런 3척을 할 때 '못본 척'하거나 칭찬을 아끼지 마라.

2. '도 아니면 모' 튀게 만들어라

남들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유명 브랜드로 온 몸을 치장시켜 줘라. 그럴 형편이 못된다면 차라리 18세기 복고풍 패션으로 등교시켜라. 유행을 선도하거나 역행해 튀게 만들어 주면 왕따는 떼어 놓은

당상이다.

3. '적 아니면 동지' 정글의 법칙을 알려줘라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학교는 말 그대로 공부하는 곳이지, 친구들과 노는 곳이 아니며 결국 친구는 경쟁자이자 적 일뿐이며 오직 선생님만이 동지라는 흑백논리를 가르쳐라.

4. '고슴도치 부모' 사랑을 실천하라

지능 박약, 주의력 결핍, 과잉운동장애, 학습 장애, 기타 발달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나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일지라도 일반 학교에 억지로 입학시켜라.

5.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는 걸 가르쳐라

잘못된 것을 봐도 무조건 피해버리라고 가르쳐라. 자기주장을 못하고 친구들이 놀리거나 못살게 굴어도 피하기만 하라고 일러라. 그것이 재미있어 친구들은 더 따돌리게 될 것이다.

6. '군계일학(群鷄一鶴)'으로 만들어라

담당선생님에게 특별대우를 부탁하라. 그러면 눈치 빠른 반 친구들이 먼저 특별대우를 해 줄 것이다.

7.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하라

일단 왕따가 된 걸 알았으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찾아가 응징을 해라.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날 테고 '마마보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진짜 왕따가 될 수 있다.

<내 아이 낙제생 만드는 일곱가지 방법>

1. '다다익선(多多益善)' 참고서는 많을수록 좋다. 원하는 대로 다 사줘라
교과과정을 쉽고 깊게 설명해주는 참고서. 많이 사주면 사줄수록 부담도 늘고 혼동도 생긴다.
2. '이왕이면 다홍치마' 공부방을 꽃단장하라
멋진 만화벽지도 좋고 화려한 커튼도 괜찮다. 주의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예쁘게 장식해줘라. 책상도 기왕이면 큰 것을 사줘라. 그러면 주의가 분산돼 자연히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3. '멀리 보고 쓴 화살이 멀리 간다' 목표를 높여 잡게 하라
반에서 1등, 아니 전교 1등을 목표로 잡게 하라. 그럼 금방 좌절할 것이고 곧 공부하길 포기할 것이다.
 4.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 성장기 내 아이 늘 배불리 먹여라
영양가 높고 기름진 음식으로 매끼 포식을 시켜라. 그러면 뇌로 가야할 피가 위장으로 가서 잠이 오고 학습효과는 뚝 떨어진다.
 5. '꿩 잡는 건 매' 학원과 강사를 믿어라
점수 올리기 도사라고 자평하는 그들에게 자녀를 맡겨라. 그러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은 저절로 없어진다.
6.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하라'
'조금만 더'라며 분발하라고 무조건 독려하라.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서 성적은 떨어진다.
 7. '내 뱃속으로 날은 자식' 전문가의 말은 절대 듣지 말라
공부계획, 공부습관에 대한 것은 '나도 전문가'. 더구나 내 자식은 내가 제일 잘 안다. 내 방식대로 공부시키는 게 최고라고 자부하라.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어른 像'

밑바닥까지 떨어진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사회가 청소년을 존중해주는 풍토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해 '한국 청소년의 어른 존경심이 아태(亞太)17개국 중 꼴찌'라는 유니세프의 조사결과(중앙일보 2001년 10월 11일자 1면)가 보도된 뒤 각계에서 존경심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가 후원하고 문화관광부가 주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이원희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주관한 '바람직한 청소년 상(象), 올바른 어른 상 원고 공모전'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제안을 들어본다.

◆ 올바른 어른이 청소년의 생각을 바꾼다

등교 길. 마을버스를 급하게 타느라 5백 원짜리를 냈다. '1백 원 정도야..'하는 마음에 거스름돈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가 "학생! 학생!"하며 부르셨다.

나는 아저씨가 1백 원짜리 하나를 낸 걸로 오해하고 화를 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1백 원을 내민 채 웃는 얼굴로 존대 말을 하셨다.

"거스름돈은 챙겨 가야지요."

그날 나는 어른들을 '나쁜 사람'으로 묶어 놓았던 끈을 잘라낼 수 있었다.

<김은영. 포천고교 2년>

◆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 자칫 단절될 수 있는 가족간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 각자 바빠서 아침시간 외에는 제대로 얼굴을 마주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아빠 출근시간에 맞춰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친구 어머니의 노력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

<이성원. 창덕여고 2년>

◆ 이웃의 아이들도 자기 자녀처럼 귀하게

내 어머니는 아동상담사다. 정서가 불안하고 산만한 한 아이를 어느 날부터 방과 후마다 집에 데려 오셨다. 어머니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랑해주셨다.

2개월 뒤 아이의 나쁜 습관은 사라졌다. 어른들이 이웃의 아이들도 자기 자녀처럼 귀하게 여겨준다면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영. 임학중 1년>

◆ 드라마 '허준'에서 교훈을

2000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허준'을 본 많은 사람들은 허준이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해 가는 인간승리의 과정을 보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을 보였다.

존경심 부재(不在)현상은 정도(正道)를 걷는 사람에 대한 냉소를 쏟아 붓는 집단 병리가 근본 원인이다.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공공성이 바로 서야 어른에 대한 청소년의 존경심이 되살아날 수 있다.

<최영희. 성균관대 4년>

◆ 거짓말 안하는 어른이 되자

초등학교 때 도벽이 심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들에게 놀림 받고 선생님들에게도 크게 혼나곤 했다. 우연히 보게 된 그 애의 일기장에는 '열흘 밤만 자면 돈 많이 벌어서 오신댔잖아요. 엄마, 왜 안오세요'라고 써 있었다. 어른의 거짓말이 큰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6학년 때 만난 담임선생님은 그 친구의 일기에 매일 빼곡히 편지를 쓰시고 집에도 자주 찾아가셨다. 선생님의 진실된 마음 덕분에 6학년이 끝나갈 무렵, 그 친구는 도벽과 어른에 대한 불신을 버렸다.

<윤혜민. 김해여고 2년>

◆ 노인을 집에 모시고 존대 말을 주고받자

오늘날의 가정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하숙집으로 전락했다. 얼마 전부터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절을 체득할 수 있었다.

어른과 청소년이 서로 존대 말을 쓰는 것도 좋겠다. 존대 말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존경심과 존중심은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다.

<이성원. 창덕여고 2년>

◆ 청소년 시설을 만들자

친구를 만나려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다. 언니 오빠의 주민등록증을 갖고라도 어른들의 장소를 비집고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많다. 바람직한 청소년 상을 만들기 위해 또래들과 마음 놓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새신자 소개

이 경화 성도

- 순복음 중앙 교회로 오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권면과 기도가 있었던 이경화 성도님은, 이제 신앙을 아늑하게 피우기 위해 역신을 냅니다. 아들 건하의 아픔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는 딸썸과 자녀를 쳐서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의 삶이 이제 주님의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며 사업 또한 더욱더 번창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영광돌리는 사업장과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기도합니다.



박 기숙 성도

- 우리 교회에 오기 전 고향을 통하여 이 교회를 보여 주시고, 이종희 권찬님을 만나게 해 주시므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딸썸을 깊이 바른 양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최명신 성도

- 중학교 시절 가슴 뜨겁게 주님을 체험한 최명신 성도님!
결혼하여 두 아들의 엄마가 되는 동안 주님을 향한 빛을 잃어가고 열정과 사모함이 사라지던 때 주님께서 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신앙을 회복하여 죽는 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선기리나 다짐하고 마음에 삶의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매님이 되길 원해요..



인청자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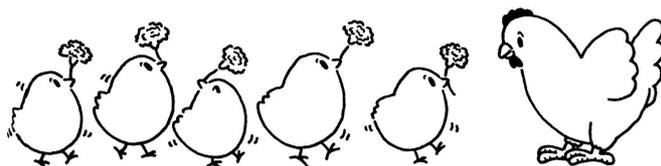
- 언니인 인성자 집사님의 권면으로 오신 인청자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연동이 예원이란 예서와 함께 출석하고 계신 성도님은 먼저 믿음의 굳게 서서 온 가족이 구원에 방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온전하신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영희 집사

- 남편 한동익 집사님을 따라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깎끔하시고 신앙심도 매우 좋으시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무슨 일에도 솔선수범하시는 축복받기 부족할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오신지 오래되지 않아 낯설고 익숙지 않겠지만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사랑으로 하루속히 거리낌 없는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운동

(NEW DRESS OF SATAN, NEW-AGE MOVEMENT)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엡2:2)

8. 뉴에이지운동과 노벨 종교상(템플턴상)

얼마 전 훈장을 거부한 한 여성운동단체의 대표의 경우는 단순한 명예의 양(量)과 위선적인 형식보다는 명예의 질(質)과 내용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것도 군사정권도 아닌 문민정부의 훈장을, 단지 함께 훈장을 받을 사람이 과거에 군사반란과 부정 축재로 얼룩진 군사정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를 과감하게 던져 버렸다.

주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그것은 그녀 개인보다는 한국여성계의 명예가 걸린 한국 여성 전체의 자존심(自尊心) 때문이었으리라 본다.

이 일을 보면서 얼마 전에 모 기독교신문에 연재된 바 있던 과거 군사정권에 협력한 교계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하여 군사반란의 동조자로 법원에 고소한 어느 정의로운 목사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덮어줄 수 없는가?" 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그것은 주님의 명예와 한국교회의 자존심이 걸린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쁨 부어 세우신 교회의 목사, 그리고 교계를 대표한다는 지도자는 개인의 명예보다는 당연히 주님의 명예와 교회 전체의 자존심을 앞세우고 자신의 모든 언행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여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명 '종교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賞)이 있다. 템플턴상은 1972년 영국의 존 템플턴 경(Sir John M. Templeton, 83세)에 의하여 제정된 '종교상'이다. 그는 범신론자이며, 세계범종교의회(CPWR-Council for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의 창립멤버였다.

그들은 해마다 세계의 150여개의 종교단체(로마 카톨릭교, 동방정교,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접신론자, 심령술사, 점술사 등)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여 인류의 평화를 위해 가장 많은 봉사과 희생을 한 종교인을 선정하여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금으로 107만 달러(약8억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상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테레사수녀(1973년), 마거릿 대처여사(1976년), 빌리 그레이엄목사(1982년), 솔제니친(1983년), 한경직 목사(1992년), 척 콜슨 전 도자(1993년) 등이다. 그리고 1996년에는 C.C.C. 국제총재인 빌 브라이트 박사가 영광스럽게(?) 뽑혔다고 기독교계의 경사(慶事)요, 축하라고 자랑하고 있다. 귀신들의 박수갈채 소리에 소름이 끼친다.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모두 단 칼에 쳐 죽였을 것을...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수고하여 쌓아올린 천국에서 받을 상을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으니(마6:1~5), 이제 천국에는 썩을 면류관만이 있을 것이고, 교회 전체의 영적인 명예와 자존심을 사탄과 그의 졸개들 앞에서 어이없이 짓밟혔으니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이며, 또한 발람이 탐낸 가증스러운 복술(卜術)의 예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殿)에 가져왔기 때문(민22:7; 신23:18)이다. 차라리 훈장을 거부하고 한국 여성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여성 대표가 더 존경스럽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상이라고 아무한테나 받아서는 안 되며, 상금 준다고 무조건 덤석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명예와 교회의 자존심을 함부로 팔지 말자!

1. 벚꽃 축제

- ▶ 일시 : 봄철 4월 중순경 2주간
- ▶ 장소 : 군산 공설운동장 및 전군간 도로(번영로)
- ▶ 안내 : 군산시 문화관광과(☎ 450-4225)



군산의 벚꽃 축제는 봄철 벚꽃이 활짝 피는 2주 동안 전주에서 군산까지 100리길 벚꽃의 아름다움을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때를 행사 기간으로 한다. 진해의 군항제와 함께 대표적인 벚꽃 축제로 군항제보다 1-2주 정도 늦은 편이다.

군산의 벚꽃 축제는 전 군도로 가로수의 멋진 풍경과 함께 은파유원지와 월명공원의 벚꽃 또한 자랑할 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주 쪽에서 군산으로 들어올 때 차창에 스치는 벚꽃을 보며 개정에 이르면 발산초등학교에 들어서 학교 안에 있는 고려시대 오층 석탑과 석등 등을 둘러본다면 일석이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축제 기간 내에 벚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월명체육관에서 열리는데 인기 연예인들의 참석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흥을 돋워 준다.

2. 군산 벚꽃의 역사

군산의 봄은 바람과 벚꽃으로 스쳐 지나간다. 군산은 바닷가에 위치한 탓에 사계절 중 봄과 가을은 오는 듯 가 버리는데 이 때문에 외지인에게 군산은 벚꽃이 없었다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이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고장이다. 처음 군산에 벚꽃이 심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안타깝게도 군항제로 유명한 진해처럼 군산의 벚꽃도 일본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심어졌다. 본래 조선시대 군산의 월명공원 자리에는 수백 년 묵은 소나무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1899년 개항과 함께 군산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식민지 조선을 수탈하는 전진 기지로서 군산을 자신들의 도시로 가꾸었는데 그 때 월명공원의 소나무는 잘라내어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국화인 벚꽃을 심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꽃을 피우는 벚꽃이 당시 일본인들이 심어 놓은 벚나무는 아니다. 그 이유는 벚나무가 수령이 60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벚꽃은 누가 심었을까? 전군가도 100리길 벚꽃은 1975년 관동지구 재일동포들이 700만원을 기증하여 여기에 도비, 국비, 시비를 합하여 6,435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현재에 이른 것이며 월명공원의 벚꽃은 1980년 초 일본 기우현 제로 로타리 클럽과 서군산 로타리 클럽이 자매결연을 맺은 기념으로 일본 측에서 벚꽃나무 200그루를 기증하였는데 그 중 80여 그루가 심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산은 일제 수탈 역사의 현장이다. '빼앗긴 들에도 꽃은 피는가'라고 절규했던 이상화의 외침을 기억하며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는다는 자세로 군산의 벚꽃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오징어 볶음>



성
도
의
맛
자
랑

1. 재료 : 오징어 1마리, 애호박 반개, 당근 반개, 양파 1개, 풋고추 2개, 홍고추 1개, 대파 반대, 깻잎 1묶음
2. 양념 : 고운고춧가루 3T + 굵은고춧가루 1T, 다진마늘 1T, 설탕 2T, 참기름 2T, 간장 1T, 깨소금 0.5T, 생강즙 조금
3. 양념 만들기
 - ㉠ 애호박 반개 : 2~3cm 골패쪽, 약간 도톰하게
 - ㉡ 당 근 반개 : 골패쪽, 약간 얇게
 - ㉢ 양 파 1개 : 0.7cm 두께로 채썰기
 - ㉣ 풋고추 2개, 홍고추 1개 : 어슷썰기
 - ㉤ 깻 잎 : 한입크기로 썬다.
 - ㉥ 오징어1마리 : 1cm x 6cm 직사각 골패 쪽으로 썬다.
4. 볶기순서 : 당근 -> 호박 -> 양파, 파 -> 풋고추, 홍고추 -> 오징어 -> 양념 -> 소금2T -> 깻잎
5. 양념은 미리 별도의 그릇에 한꺼번에 섞어놓는다. 오징어를 나중에 다듬어야 도마를 한 번만 씻는다(냄새나는 것은 맨 나중에 다듬는다). 오징어는 하얗게 되면 익은 것이다(오래 익히면 질겨짐). 볶기 순서를 지키도록 하고 양념은 미리 준비했다가 한번에 넣는다. 볶을 때, 야채에서 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빨리 볶아야 한다. 깻잎은 숨만 죽을 정도로 살짝 익힌다.



찬양 간증

찬양으로 받은 은혜

윤희자 전도사

처음 사역을 나갔던 곳이 대구였다.
 그곳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오로지 부르심을 받아 처음 밟아본 도시였다.
 30여 명의 지하 교회에서 한 평 낡짓 되었을까...
 교회 한 귀퉁이 방에서 기도하면서 어린 나이에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외로움에 심적인 부담이 컸었나보다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곤한 몸을 누이는데 내 마음의 평화에 눈물로 범벅지게 하는 찬송이 들려 왔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의 찬송은 연약함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금 세상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 일어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평안을 주셨다.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할 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내 안에 하나님께의 평안과 평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리라.
 할렐루야!!

◆ 제 10호 퍼즐 정답 ◆

요	나	단		엠	마	오
단		비	돌	기	하	
강	건			생	나	흠
		데	라		임	
		마				
무	능			이	면	적
지		다	소			자
개	구	리	발	라	단	



1.Ultra DMA

- 1) 속도가 빠른 Ultra DMA 하드디스크를 쓰려고해도 표준 설정 윈도우에서는 못 쓸 때가 많다.
- 2) 이 문제를 해결해 돈 한푼들이지 않고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 3) 일단 제어판에 있는 '시스템'에서 '장치 관리자' 탭을 선택하고 디스크 드라이브 항목을 보자.
- 4) IDE방식의 하드디스크는 'Generic IDE Disk Type XX' 같은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 5) 등록 정보 창을 열어 탭에 있는 DMA 항목을 누르면 간단히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 FAT32에 대하여

- 1) 윈도우 95의 OSR 2에 처음으로 도입된 FAT32는 디스크 용량을 절약하고 하드디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속도가 향상된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 2) 이렇게 FAT32로 하드디스크를 설정하면 편리한 장점이 많지만 문제는 관리이다. 원래 시중에서 팔고 있던 디스크 유틸리티는 FAT32와 궁합이 맞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
- 3) 윈도우 95를 깔고 아직도 FAT16을 이용한다면 빨리 FAT32로 바꾸는 것이 좋다.
- 4) 시작메뉴의 시스템 도구에 있는 '드라이브 변환기(FAT32)'를 이용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FAT32로 바꿀 수 있다.
- 5) 드라이브 변환기를 수행한 다음 FAT32로 바꿀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된다.
- 6) 원래 도스 시절부터 이용하던 FAT 16은 아무리 작은 파일도 16KB 이상의 용량을 차지하면 FAT32에서는 4KB로 줄어든다.
- 7) 윈도우 환경에서 많을 수 밖에 없는 작은 파일이 차지하는 엄청난 공간을 줄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한숨을 돌릴 수 있다.

3.시스템 체크시간을 줄인다.

- 1) 윈도우 98은 95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장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 때나 설정을 바꿀 때 다시 컴퓨터를 켤 것을 요구한다.
- 2)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귀찮을 때가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시작 메뉴에서 '시스템 종료'를 눌러 '시스템 다시 시작'을 체크한 다음 키를 누르면서 '확인'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수행되던 메모리와 SCSI 체크가 생략되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 훨씬 빠르게 윈도우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SCSI 체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SCSI 기기를 많이 쓸 때 좋다.
- 3) 따라서 컴퓨터를 다시 켤 때는 반드시 키를 누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4.윈도우의 시작과 종료를 단축시키는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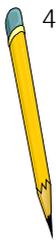
- 1) 종료 음을 없애면 음악을 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종료 시간도 빨라진다.
- 2) 종료할 때의 사운드를 끄려면 제어판에 있는 '사운드' 구성 정보를 누른다.
- 3) 여기서 'Windows 종료를 찾아 이름에서 '사운드'를 '없음'으로 바꾼다. 윈도우를 시작할 때 나는 소리나 여러가지 선택을 할 때 나오는 효과음도 잘라내면 그 만큼 컴퓨터가 힘들지 않

게 일을 수행할 수 있다.

- 4) 그만큼 CPU에 부담을 많이 주고 성가신 일들까지 많이 생긴다. 멋진 PC보다는 꽤 적하고 빠른 PC를 원한다면 효과음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스캔 디스크 작업을 최소화 한다.

- 1)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거나 정전이 되었을 때처럼 정상적인 순서를 밟지 않고 윈도우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면 자동으로 스캔디스크(Scandisk)가 나온다. 물론 키를 눌러 건너 뛰는 방법도 있지만 일일이 이 작업을 하려면 귀찮기 마련이다.
- 2) 디스크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시스템에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스크 검사 기능을 꺼버리는 것이 시간을 절약을 위해 좋다.
- 3) 먼저 C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Msdos.sys의 등록 정보를 열어 '읽기 적용' 체크를 없앤다.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을 메모장 같은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 연 다음 'AutoScan=1'에서 'AutoScan=0'으로 바꾼다.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윈도우를 끝내더라도 더 이상 스캔디스크는 나오지 않는다.
- 4) 물론 시스템 이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디스크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잊지 말자



아름다운 이야기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이는 공책에 무엇인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 무얼 적고 있니? 엄마가 봐도 될까? "

" 네! 여태까지 엄마에게 해드렸던 심부름에 대한 청구서예요. "

엄마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엄마도 청구서를 써 볼 테니 네가 한번 봐주겠니? " 했더니 아이는,

" 엄마도요? 엄마 한 게 없잖아요? "

" 글썄, 조금은 한 것 같은데. "

엄마는 청구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 팔년간의 식사제공 0원, 수없이 많은 설거지와 빨래 0원, 아플 때 병간호 0원, 숙제 도와준 것 0원, 온갖 시중들기 0원, 합계 0원.

0원의 합계를 낸 엄마에게 아이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 엄마는 너에게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무엇이든 주고 싶어.

그러나 네가 청구한 2,500원은 줄께. "

그러자 아이는 엄마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아니예요, 엄마. 저도 엄마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않겠어요." 낮은 울타리..

❖ 이웃사랑 ❖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 11:24~25)

봄철 건강관리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

평소 얼마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지는 환절기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겨울에 적응된 신체가 미처 봄에 맞춰 자신을 조절하기 전인 요즘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최대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봄을 몹으로 앓는다.

이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알레르기 질환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20~25%가 환절기에 알레르기 질환으로 시달린다고 진단한다.

그중 건조열이라고도 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가족중에 알레르기 질환자가 있는 사람에게 특히 많고 20살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10%가 이병을 앓는다.

증상은 재채기·콧물·코막힘 등으로 코 주위가 험거나 코에서 악취가 난다면 비염보다는 축농증을 의심해야 한다. 코가 가렵기 때문에 코를 비비고 문지르거나 잡거나 한다.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코를 들어올리는 환자들도 많다. 꽃가루뿐만이 아니라 먼지·곰팡이·동물의 털이나 향수·페인트·담배연기·암모니아 등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갑자기 온도나 습도·기압이 변해도 일어난다.

치료법은 원인이 되는 인자를 피하고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다. 외출 때 코와 입을 막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침대의 매트리스나 카펫에서 생기는 집먼지 진드기가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해 자주 먼지를 제거해줘야 한다. 재채기 등에 효과가 있는 항히스타민제 계열의 약품을 쓰면 가려움증·콧물 등을 줄일 수 있고 생리식염수를 코점막에 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요즘은 기관지천식도 조심해야 한다. 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는 증세를 보이는 병으로 숨쉬는 소리가 거칠어지고 심하면 쌕쌕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는 어느 연령층에서나 생기지만 대개 3~6살에 시작한다.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높게 발생하지만 사춘기가 지나면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 어린이의 5~10%가 걸리며 점차 도시 지역 어린이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천식이 생기기도 하고 운동할 때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알레르기성 천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래를 밖으로 쉽게 내보내려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급성 천식을 일으킬 때는 산소요법을 써야 한다.

환절기면 빠짐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은 물론 감기다. 감기는 대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통해 옮겨진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비물, 곧 콧물을 통해 감염되기가 가장 쉬운데 이렇게 오염된 손이나 다른 신체의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4시간이나 생존할 수 있다.

때로는 재채기나 말할 때 나온 작은 물방울 입자가 감기를 옮길 수도 있어 마스크 사용만으로도 바이러스 전염을 훨씬 줄여줄 수 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기침할 때 반드시 손을 가리고 콧물이 묻은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특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다른 식구에게 전염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위생점검이 중요하다.

알레르기 안과 질환

안과질환중 매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알레르기성 결막염(結膜炎)은 눈꺼풀 안쪽과 안구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결막이 외부 물질에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 원인은.

집먼지 진드기 등을 비롯한 미생물 또는 꽃가루 약품 화장품 등의 유기물질이 주요원인이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발생빈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세이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타고난 체질적인 것이 발병 원인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 증상및 치료는.

가려움증 눈곱 안구충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는 알레르기의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냉찜질 혈관수축제 항히스타민인공누액세척 등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비만세포안정제로 처방하기도 한다.

- 예방은.

체질에 따른 발병률이 높으므로 원인 물질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벚꽃놀이 등의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카펫 이불 침대 등을 자주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중 계속되는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집진드기이므로 이를 예방하기위한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봄철 건강 규칙

봄에 온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없으며 피부도 까칠해지는 것을 '봄을 탄다'고 한다. '봄에 노곤한 증상'을 춘곤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뇌하수체와 부신피질계 및 심장, 간장의 기능저하에 나타나는 복잡한 증후군이다.

❑ 봄이 나른할 때는 쓴맛 나는 나물을...

봄이면 나른함을 호소하면서 입맛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신체장기가 왕성한 기능을 해야하는 봄철에 영양부족으로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서 장기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하는데 바로 씀바귀나 고들빼기 같은 쓴맛 나는 봄나물이 그런 기능을한다.

❑ 식초의 신맛이 입맛을 돋구어 줍니다.

봄을 타는 증세는 우리몸에 피로물질이 많아지고 몸속의 칼슘성분이 부족해졌을때 더 심해지는데, 이때 식초가 무척 효과적이며 특히 현미식초가 가장 많은 아미노산을 함유한다.[춘곤증 예방을 위한 방법]

❑ 충분한 수면

밤의 길이가 짧아진 반면 활동시간대가 증가한 것에 아직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므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 적당한 운동

자율신경의 적응력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등을 위해 몸을 수축,이완시켜줄 수 있는 맨손체조와 스트레칭등의 가벼운 전신운동을 한다.

❑ 겨울보다 증가된 비타민 요구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식단구성

겨울에 비해 전체적인 영양소 요구량이 크게 증가하지만 특히 비타민은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로 그 요구량이 크게 증가한다.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 비타민 B1과 면역기능을 돕는 비타민C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 비타민 B1은 현미,울무,돼지고기, 버섯류나 견과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C는 채소류나 과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따라서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봄철에 많이 나는 달래, 냉이,씀바귀 등의 산나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신선한 맛과 향으로 식욕을 자극하므로 봄철 식단에 이용하기에는 제격이다.

❑ 규칙적인 세끼식사

바쁜 직장인의 경우와 식욕이 감소된 경우 대부분 아침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은데 아침식사를 거른후 점심식사를 하게되면 보상심리에 의해 과식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식곤증으로 인해 오후시간에 고생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춘곤증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당진군을 아십니까?』

1. 연혁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마한(馬韓)의 영역이었으며 삼국시대 백제 때에는 면천에 해군이 있어서 당진의 넓은 범위(範圍)를 관장하였으며 당진읍을 중심으로 한 벌수지현(伐首只縣)은 당진과 고대면 쪽으로 그리고 정미면은 벌수지현이 아닌 여촌현(餘村縣)에 속했으며 신평을 중심으로 한 사평현(沙平縣)은 송악 한진 방면으로부터 넓은 해안에 산재한 영역을 관할하였다. 통일신라 제 35대 경덕왕 때에는 혜성군의 영현인 당진현이었다. 고려시대 초기는 지방제도가 설치되지 않고 지방호족이 다스렸으며 성종(成宗) 2년(983)에 전국을 12주로 나눌 때는 공주에 속했다. 고려 8대 현종(顯宗) 9년(1018)에는 운주(지금의 홍성)에 속한 당진현이었으며, 고려 제16대 예종(睿宗) 원(1105)에는 감무(監務)를 두었다. 고려 말엽 공민왕 7년(1358)에는 홍주목에 속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때와 같이 홍주목에 속했다가 태종(太宗) 13년(1413) 당진에 다시 현감을 두었으므로 충청도 당진현이었다. 조선시대 말엽 고종32년(1895)에는 당진군이 되어 군내, 동면, 남면, 상대, 하대, 고산, 외맹, 내맹의 8개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때 면천군의 22개면과 해미군 일도면 대운산의 2개리와 염솔면 삼곡리의 일부와 예산군 신종면의 옥금 흑석의 2개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당진군으로 하고 이배, 고대, 석문, 마암, 송산, 순성, 범천, 합덕, 송악, 신평의 10개면 123개리로 개편 관할하는 군이 되었다. 그 후 1917년10월에 마암면을 면천면으로 1928년엔 이배면을 당진면으로 고치고 또한 1942년10월 1일에 범천면을 우강면으로 고쳤으며, 1957년11월 6일에 법률 제456호에 의하여 서산군 대호지면과 정미면 18개리 전체를 편입 하여12개면을 관할하는 군이 되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에 법률 제 1177호에 의하여 당진면이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73년 7월1일에 다시 합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또한 정미면 여미리가 서산시 운산면에 편입되어 현재는 2읍 10면 149개리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군은 충청남도 북부지방에 자리하여 동쪽으로는 아산시와 경기도 평택시, 서쪽으로는 서산시와, 남쪽으로는 예산군과 서산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화성군과 접하고 있으며 대체로 산악과 구릉이 연결된 넓은 평야지대로써 농업웅군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2. 위치



충청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군으로 북으로는 송산, 송악, 석문면 등이 서해와 아산만을 경계로 인천시 대부면과 평택시 포승면, 화성군 우정면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신평면, 우강면 그리고 합덕읍이 삼교천을 경계로 아산시 인주면 선장읍에 접해있고 남쪽으로 합덕읍은 예산군 신암면과 접하고 면천은 예산군의 고덕, 봉산면과 접하며 정미면은 서산시 음암면, 운산면과 경계를 이루면서 당진군의 2/3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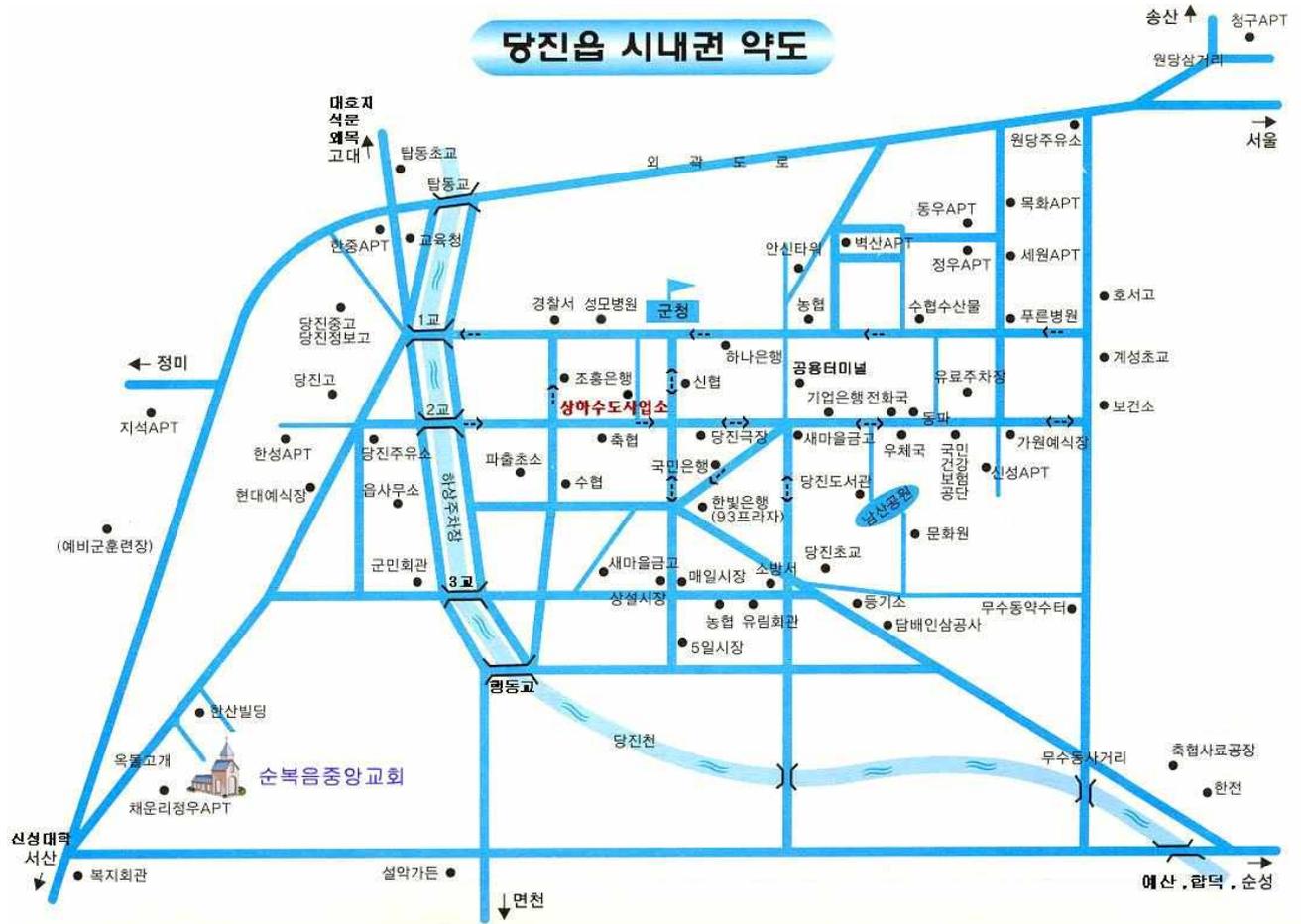
당진군 읍내리에서 서울까지 130km, 수원 90km, 평택 50km, 천안 66km, 청주 120km, 대전 136km, 공주 93km, 홍성 42km, 서산25km, 강릉 329km, 포항 386km, 부산 430km, 목포 326km이다.

❖ 기후

한반도의 기후형인 온대계절풍 및 대륙성 기후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진지역은 온순기후에 해당되어 4계절이 뚜렷한 기후형으로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적 위치에 속하고 있다.

당진읍 시내권 약도



● 행정구역 현황

단위:개소 2000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읍	면	리	반	자연마을
계	2	10	250	1,313	661
당진읍	1		34	232	65
합덕읍	1		34	173	66
고대면		1	17	87	60
석문면		1	19	74	23
대호지면		1	12	57	41
정미면		1	18	69	79
면천면		1	17	80	59
순성면		1	17	101	48
우강면		1	17	96	42
신평면		1	19	122	67
송악면		1	29	142	66
송산면		1	17	80	45

▶ **삽교호방조제**

위 치 : 신평면 운정리 ⇄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사업기간 : 1976. 12 ~ 1979. 10(2년 10월)
 사 업 비 : 162억원
 사업개요 : 길이 3,360m, 높이 8~12m
 주요시설 : 담수호1개소(저수량 8,400만톤), 양수장 27개소, 용수로 742km,
 경지정리 9,432ha, 만수면적 2,107ha

▶ **서해대교**

위 치 : 송악면 복운리 ⇄ 행담섬(신평면 매산리) ⇄ 평택군 포승면 내가리
 사업기간 : 1993. 11 ~ 2000. 12(6년)
 사 업 비 : 5,300억원
 사업개요 : 교량 7,310m, 넓이 31.41m(6차선), 당진구간 3,200m

▶ **석문방조제**

위 치 : 석문면 장고항리 ⇄ 송산면 가곡리
 사업기간 : 1987. 7 ~ 1995. 12(8년 5월)
 사 업 비 : 1,520억원
 사업개요 : 길이 10,600m, 넓이 120m(2차선), 높이 13m
 주요시설 : 배수갑문 1개소

▶ **대호방조제**

위 치 : 석문면 교로리 ⇄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사업기간 : 1981. 4 ~ 1985. 9(4년 5월)
 사 업 비 : 1,460억원
 사업개요 : 길이 7,800m, 넓이 100~250m, 높이 30m
 주요시설 : 담수호1개소(저수량 122백만톤), 양수장 7개소, 용수로 245km,
 배수갑문 2개소, 만수면적 2,175ha

▶ **당진화력**

위 치 : 석문면 교로리
 공사주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기간 : 1995. 5 ~ 2000. 6(5년)
 * 1, 2호기(1995. 5 ~ 1999. 12)
 * 3, 4호기(1996. 9 ~ 2000. 6)
 사 업 비 : 2조2천억원
 시설용량 : 50만㎾ × 4기(석탄연소 기력발전)
 주요설비 : 대지현황 1,123천평, 화력처리장 393천평, 용수원 보령댐,
 석탄소비량 1,887천톤/년(백만㎾기준)

▶ **한보철강공업(주)**

위 치 : 송악면 고대리일원
 사업기간 : 1990. 12 ~ 1998. 12(8년)

사 업 비 : 4조 3천억원
대지면적 : 119만6천평(A지구270, B지구 488, 기타 438)
생산품목 : 제강(소형봉강), 열간압연, 산업용가스
종업원수 : 2,966명 계획(720명)
연생산량 : 700만톤
연매출액 : 1조 2천억원

▶ 동부제강(주)

위 치 : 송악면 고대리, 한진리 일원
사업기간 : 1996. 10 ~ 1999. 11(3년 1월)
사 업 비 : 1조원
대지면적 : 302,651평
생산품목 : 철강
종업원수 : 1,004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위 치 :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사업기간 : 1992 ~ 2002(10년)
조성면적 : 3,655천평
사 업 비 : 11,197억원(분양예정가 : 평당 458천원)
유치업종 : 수송용기계, 조립금속, 정밀화학, 섬유등

▶ 석문간척사업

사업목적 : 국토확장, 농지조성, 수자원개발, 농가소득증대
사업구역 :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송산면 지내
개발면적 : 3,749ha(개답 1,990ha, 담수호 874ha, 국가공단 885ha)
사 업 비 : 2,559억원
주요시설 : 양수장 1개소, 정지 748블럭, 용수로 62조70km, 배수로 75조68km,
방수제 5조 16km, 도로 6조54km

▶ 고대부곡지구 공단조성

위 치 : 송악면 고대리, 부곡리
사업기간 : 1992. 12 ~ 1999. 12(7년)
사업면적 : 1,614천평
사 업 비 : 4,967억원
사업주체 : 한국토지개발공사(아산국가산업단지직할사업단)
산업단지분양
* 고대지구 : 동부제강(주), 연합철강공업(주), 동국제강(주), 제일산업(주)
* 부곡지구 : 하이닉스반도체(주), LG에너지(주), (주)LG화학

▶ 서해안 관광도로

위 치 : 신평면 매산리 ⇄ 송산면 가곡리
사업기간 : 1995. 12 ~ 2001. 3
사 업 비 : 997억원
공사개요 : 길이 16,600m

1. 잘 넘어지는 노인 심장병일 수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잘 넘어지는 노인은 고령으로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심장병이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뉴캐슬대학 노화-건강연구소의 심장병 전문의 「로스 앤 케니」 박사는 미국흉부학회 학술지 11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넘어져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노인 159명중 심박조율기를 장치한 83명과 이를 장치하지 않은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조사 결과 잘 넘어지는 것이 노쇠 때문이 아니라 심장병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케니 박사는 심박조율기 그룹은 넘어지는 횟수가 70% 줄었으며 비교그룹에 비해 넘어질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케니 박사는 이 결과는 노인들이 이유없이 넘어지는 것이 심장병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일시적인 의식상실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인 심기능억제성 경동맥동(頸動脈洞)과민증은 심박조율기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심박조율기가 노인들의 넘어짐을 막아주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하나는 심박조율기가 일시적 의식상실까지는 아닐지라도 넘어짐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심박동의 미세한 저하를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리건 보건대학의 존 매카널티 박사는 이 연구결과는 노인들의 보행장애 및 넘어짐과 연관이 있는 다른 의학적 이유를 고려하지 않았고 조사대상자수가 너무 적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노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논평했다.

2. 노인건강지수를 알아본다.

- 4월달 -

- 5월달 -

순환지수 40	순환지수 30
새로이 태어나는 봄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기분을 밝게. 적당한 야외체조로 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기온의 상승과 함께 활동력도 원활해진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굳어진 몸을 풀도록 하자.
수면지수 50	수면지수 40
춘곤증으로 쉬 피로해진다. 적절한 양의 낮잠은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다. 많이 자면 머리가 무거워지므로 주의한다.	자극성이 강한 음료는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음료를 권장한다.
중풍지수 30	중풍지수 25
날씨가 풀렸다고 방심을 늦추면 안된다. 낮과 밤의 온도차이에 유의한다.	날씨가 풀렸다고 찬물에 목욕은 금물이다. 항상 따뜻한 물로 씻는다.
관절지수 50	관절지수 40
팔, 다리가 쉽게 피로해진다. 가벼운 나들이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자.	쾌활한 마음으로 무리 없는 나들이에 나서자. 팔, 다리가 너무 피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욕지수 70	식욕지수 75
성질이 너무 차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냉이나 썩것으로 입맛을 돋운다.	제 계절에 나는 음식물로 입맛을 돋구자. 달래나 취나물 등이 봄철 나물로 제격이다.

3. 노인의 혈액순환을 돕는 체조

<p>혈액 흐름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찬바람으로 혈관이 수축되면 손발 끝이 시리거나 저리고 몸조차 더욱 움츠러들어 자칫하면 건강을 잃기 쉽다.</p> <p>노인들은 또 평상시 잘못된 습관이나 노화로 생긴 자세불량 등으로 신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비뚤어져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어들고 근력과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 이럴수록 몸을 더 움직이고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p> <p>체조는 심장부위에서 멀리 있는 신체부위부터 실시하고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 점점 강도를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강도를 줄이고 호흡 고르기를 하면서 체조를 끝낸다.</p>	
<p>◇ 목어깨 풀어드리기</p> <p>양손을 허리에 대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승모근(목어깨 근육)이 귀에 닿을 정도로 천천히 끌어올려 3~5초 정도 정지했다가 순간 탄력으로 승모근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5,6회 반복.</p>	
<p>◇ 발 주무르기</p> <p>발은 내장의 반사부위가 집중된 인체의 축소판. 정성스런 마음가짐으로 발의 중심부터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발바닥 전체를 가볍게 주무른 뒤 발목의 아킬레스건까지 주무른다. 10회 이상 반복.</p>	
<p>◇ 허리 풀기</p> <p>양손 엄지와 엄지 사이를 4cm 정도 띄워 허리부위 척추(1~5번 요추 사이)를 호흡에 맞춰 누른다. 양손바닥을 겹쳐 허리부위에 대고 손바닥을 밑고 당기면서 허리가 파도치듯 경쾌하게 흔든다. 20~30회 반복.</p>	
<p>◇ 무릎관절 피로 풀기</p> <p>노인이 무릎을 펴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뎛개뼈 부위를 열 손가락 끝으로 가볍고 리드미컬하게 두드린다. 양쪽 각각 100회 반복. 노인을 옆드리게 한 뒤 무릎을 90도로 세워 한 손은 발목, 한 손은 허벅지 부위를 잡고 맷돌질하듯 돌린다. 양쪽 각각 30회 정도 반복.</p>	
<p>◇ 전신 두드리기</p> <p>노인이 편안하게 앉은 자세를 취하고 시술자는 손바닥을 오목하게 구부려 어깨 팔 손을 2~3분 빠르게 두드린다. 소리가 날만큼 세게 두드린다. 혈액순환에 좋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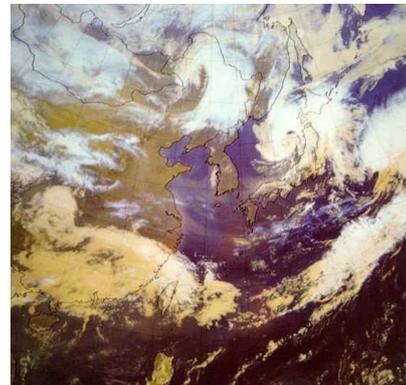


황사(黃砂)의 정의

주로 중국 북부의 황토(黃土) 지대에서 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무수의 미세한 모래 먼지가 대기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하하는 현상 또는 강하하는 모래 먼지를 말한다(기상학 사전, 1992).

중국의 건조 지역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부에 있어, 서고 동저의 지형 특성을 갖으며, 다양한 기후가 존재한다. 자연지리면에서 동부 계절풍 지역, 서북 건조 지역과 한랭 지역의 3구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면적은 전국의 48%, 30%, 22%를 차지한다. 이 중 서북 건조 지역은 황사의 발원지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특징을 알아보자. 중국의 서북 건조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이다. 해양과 멀리 떨어져 있어 건조하며 강수량은 적다. 중국의 연 강수량과 중국 대륙의 사막 분포를 보면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보통 400㎜이하이고 중국의 사막 대부분이 이곳에 위치한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타림분지의 중서 부에 있으며, 중국 최대의 사막이다. 동서로 약 1000km, 남북으로 400km의 폭으로 면적이 330,000km² 이나 되고, 중국 사막 총 면적의 52%를 차지한다. 사막의 유동 모래언덕은 남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모래언덕의 고도는 보통 100~150 m이며 200~300m가 되는 것도 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동북 방향에 고비사막이 있다. 이것도 중국의 최고 건조 지역 중 하나로 동서로 250km, 남북으로 100km로 면적이 60,000km² 에 가깝다. 해발고도는 1000~1500m이나 지표면은 고비 구릉이 많고, 모래 언덕이 있다. 이곳의 기후는 연 강수량이 30㎜ 밖에 안되고, 바람은 강하다. 바다인자란 사막은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사막으로 내몽고 자치구의 서쪽에 있다. 면적은 44,300km², 해발고도는 1300~1800m 이다. 기후는 물론 건조하며 연 강수량도 50~150㎜ 밖에 안된다. 유동 모래언덕이 총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모래언덕의 고도는 보통 200~300m 이나 400m에 달하는 것도 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모래언 덕이 있는 사막이다.



<위성에서 바라본 황사현상>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모래이다)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텐켈 사막은 내몽고 서남부에 있다. 면적은

40,000km², 해발고도는 1400~1600m이다. 모래언덕의 면적이 총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보통 동남쪽으로 이동한다. 이상이 중국에 있는 황사와 관련이 있는 건조 지대의 특징이며 거의 대부분의 황사가 이곳 건조 사막을 기원으로 한다.

중국 사료로 본 황사

중국 사료 중에 황사 현상은“雨土”로 표현된다. 근대의 기상 용어로 말하면 먼지 폭풍, 모래 폭풍에 해당한다. 최근 100년간의 역사, 지방지 등 사료가 정리되어 황사 침강에 관한 1156건의 기록을 토대로 다음 결과를 얻었다.

雨土 현상의 계절 특성

사료에 의한 중국 대륙의 雨土현상은 매월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雨土 발생 시각이 기록된 508개의 사례로부터 얻은 雨土의 계절적 특징은 봄에 雨土가 많이 발생하며, 1년 중 약 1/4의 雨土가 4월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사 침강의 빈도

"雨土"의 형태로 나타나는 황사 침강은 1년 중 몇 번 발생한 것이 있다. 그것은 1회의 침강이 수회의 범위로 확대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해를「雨土年」이라고 한다. 기원 300년이후의 중국 역사 시기의 雨土年으로부터 10년중 雨土年의 발생 횟수, 즉 雨土年 빈도를 분석해보면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있는 것이 뚜렷하다.

10세기 후반이 이전에 비해 雨土年의 빈도가 1060~1090년에 빈번하며, 1160~1270년, 1470~1560년, 1610~1700년과 1820~1890년의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雨土와 기온과의 관계

중국 최근 500년간의 雨土빈도와 온도 지수와의 관계로부터 (여기서 온도 지수는 실제 기온 값이 아니라 옛날 기록을 해석하여 얻은 기온 변화를 나타낸 상대 지수) 張 (1980)에 의하면 이 온도 지수는 근대의 기상 관측 값과 좋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雨土빈도와 기온이 반비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고, 그 역상관계수는 0.6 정도나 된다. 이것은 기후의 한랭기에 황사 침강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한랭기 (1961년~1970년, 1811~1900년)에 평균 雨土 빈도가 3.7회/10년인데 비해 온난기 (1511~1620년, 1721~1780년)에는 2.1회/10년밖에 안 되었다.

황사 침강량에 대해서는 사료도 적고, 목측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 최근 500년간의 황하 하류에 걸친 8회의 기록을 분석해서 한랭 기후기에 황사 침강이 다발하며 동시에 강도도 큰 것을 발견하였다. 이 먼지폭풍의 빈도와 규모가 한랭기와 온난기의 사이에서 차가 있는 것은 대기 대순환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황사 꽃가루 봄철 피부의 적

- 봄에는 생체리듬이 활발해 피부가 외부 자극에 민감 -

봄철 특히 3~4월경에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눈이 가려워 비비기라도 하면 결막염이 되기 쉽고, 재채기를 하고나면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다.

이와 함께 봄에는 바람과 꽃가루 그리고 황사 현상으로 연약한 피부가 노출된다. 피부를 자극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자칫 봄철의 피부를 거칠어지게 만들 수 있다.

봄철에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이를 대처하는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봄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바깥에서 햇빛을 쬐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반드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한다.

자외선을 직접 쬐이게 되면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기미나 주근깨, 잡티와 같은 색소성 질환이 찾아오기 쉽다. 그러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 피부를 편하게

봄에는 생체리듬이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피부의 모든 기능이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피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법이다.

봄철 피부미용을 위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기계적인 자극이다. 거칠한 알갱이가 들어있는 딥클렌징 제품이나 스크럽크림은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그리고 각질이 일어난다고 목욕할 때 때밀이 수건으로 때를 박박 미는 것은 그야말로 피부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철에 거칠게 일어난 각질은 아주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

얼굴을 씻거나 샤워할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로 해야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목욕 후 보습크림을 온몸에 듬뿍 발라 피부 건조를 막아준다.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 외출후에는 즉시 깨끗하게

황사와 꽃가루는 봄철 피부건강의 큰 적이다. 피부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피지분비량이 급증하는데, 황사나 먼지, 꽃가루 등이 모공을 막아 각종 피부질환을 유발한다. 알레르기 환자는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과 함께 피부발진, 가려움증 등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외출후에는 즉시 얼굴을 씻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한다. 더러워진 피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모세혈관 수축으로 혈액순환이 둔화돼 피부노화를 촉진한다.

◆ 균형있는 영양공급도 중요

이밖에도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술, 담배를 피하며, 비타민A가 풍부한 당근, 버터, 달걀노른자를 많이 섭취하는 등 균형있는 영양공급에도 신경을 쓰도록 한다.



예화

장님과 등불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인 것을 알기에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힐 것만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필요도 없는 등불이지만 눈뜬 사람들이 그의 등불을 보고 비켜갈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소?"

장님이 소리치자 상대방은 어리둥절합니다.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 등불도 안 보인다는 말이오?"

그제야 그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 장님은 불 꺼진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장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영혼의 등불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하십시오~



조용히 볼펜을 들고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니 살포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정말로 힘겹고 암울한 그때였는데..... 내게 손 내미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므로 자욱한 안개는 걷히고 따사롭고 아늑하기까지 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나온 시간 중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작은 간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복음을 전해 듣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곳이 바로 우리의 순복음중앙교회이지요. 나는 그때 성경 구절을 찾을 줄도 몰랐고 찬송가를 제대로 부르는 곡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교회의 “교” 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등록심방”을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고백하건대 전 심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전도한 아주머니(지금 집사님)께 여쭙어 보았더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이 우리 집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라고 하대요.

사실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돌이 못된 어린아이와 이제 막 군을 제대한 남편과 살았고 시어머니께 근근이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하는 처지였지요. 심방 날자는 정해졌는데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걱정이었습니다. 현금도 해야 했고 접대를 위해 다과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때 집에는 꾸깃한 천원 짜리 다섯 장이 전부였거든요. 난 기도도 할 줄 몰랐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이 생긴 거예요. 평소 전화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닌 남편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먹고 싶냐고 사다 주겠다고.....

물론 거절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오렌지 주스 한 박스를 사다가 주고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까이 사는 큰언니가 난데없이 나타나서는 참외를 사주고 가는 거 있죠!!

기도 한마디 할 줄 몰라서 못하고 그저 교회를 향한 마음에 염려로 심방의 모든 준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끝이 났답니다. 가지고 있던 오천 원은 적지만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주스와 참외는 심방 오신 분들 접대하구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지 일주일도 채 못돼서 받은 체험이에요. 내게는 너무도 값지고 잊을 수 없는 첫 체험요....

음~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믿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에 귀염둥이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있었지요. 지금은 그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3학년의 아주 예쁜 꼬마 숙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가 너무 자주 아픈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병원 안가는 날이 이상할 정도로 매일 아팠어요. 그런 아이로 인해 엄마인 나는 지치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채는 아이를... 때로는 보챌 기운도 없이 축 늘어진 아이를 업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름이상 쉴 틈도 없이 아프던 아이가 많이 좋아져서 제법 뛰놀던 그날.....

나는 지저분해진 거실을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애가 갑자기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며 쓰러지듯이 바닥에 누워 버리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마에 손을 얹어 보니 또 열이 나더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새내기 성도였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기도 내용은,

“하나님 차라리 엄마인 제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잠시 후 아이는 거짓말 같이 좋아졌고요. 아픈 머리를 감싸 쥐고 너무 아파서 참지 못하고 울고 있는 엄마 옆에서 조금 전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 현관문도 열어 주지 못할 만큼 많이 아팠고 나의 신앙은 그 이상으로 성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 체험들은 큰 사건과 문제들을 해결한 다른 여러 성도님들의 체험에 비하면 너무 보잘 것 없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런 작은 체험들이 바탕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음을 알기에 작은 체험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대상포진

▾ 정의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일어나는 수포성(水疱性) 피부질환. 대상포진이라는 질병명은 벨트 또는 띠라는 라틴어와 프랑스어에서 기원하였는데, 몸통에 생긴 띠모양의 피부발진을 의미한다.

수두에 걸렸던 사람은 누구라도 대상포진이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는 특정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어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인구의 약 20%가 그들의 일생중 감염시기를 겪는다.

무엇이 바이러스를 일깨워 건강한 사람에게서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신체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질 때 바이러스가 재생하고 신경성유를 따라 피부로 이동한다고 생각한다.

이 바이러스는 소아전염병인 수두의 바이러스와 같아서 같은 가족내의 소아에게서는 수두를, 성인에게서는 이 증세를 흔히 볼 수가 있다. 외상이나 스트레스가 대상포진 발생에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질환을 이겨낼 능력이 약한 사람들에서 더 대상포진이 잘 생긴다. 또한 더 심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백혈병이나 임파종같은 암환자, 또는 암으로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이에 속한다. AIDS처럼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이고 장기이식을 받고 이식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약을 쓰는 사람들도 대상포진이 생기기 쉽다.

▾ 대상포진의 증상은 무엇인가 ?

발열, 전신권태감 등이 전구증세로 나타나거나 또는 전구증세 없이 일정한 신경지배영역에 작은 물집이 띠 모양으로 모여서 생긴다.

물집의 주위는 일반적으로 붉게 되지만 그것이 확대 융합하여 넓게 조홍면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물집은 모양, 크기가 모두 단일성이고, 물집의 내용물은 처음에는 투명하지만 나중에 탁해지는 수도 있다.

발진이 생긴 부위에 신경통이 일어나는 일이 많지만, 지각과민(蟻走感: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소양, 지각둔마, 때로는 운동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신경통은 발진이 나타나기 전부터 생겨서 발진이 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 나온 후에도 장기간 계속되는 일이 있다.

물집이나 농포는 곧 터져서 부스럼이 된 후 딱지가 앉거나, 아니면 그대로 흡수되어 흑갈색의 딱지를 형성하였다가 떨어지면 낫는다. 전체 경과는 2~3주일에 걸쳐 계속되고,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는 일이 있다.

특히 삼차신경의 지배영역인 얼굴·머리부분과 늑간신경의 지배영역에 신경통이 심하며, 전자의 경우 눈이 침범당하면 심한 안통을 일으킨다. 때때로 온몸에 물집 모양의 발진이 함께 생겨 중증을 나타낼 때가 있다.

이 증세는 악성 림프종이나 패혈증 등의 중병을 병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통증은 얼마나 심한가?

흔히 통증은 진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다. 현명한 환자라면 통증을 이를 악물고 견디어 내기보다는 진통제를 먹을 것이다.

▾ 어느 부위에 흔히 생기는가?

수포는 몸통과 엉덩이에 가장 흔히 생긴다. 두부의 신경도 침범될 수 있으므로 수포가 얼굴에 생길 수도 있다.

만일 수포가 눈 주위에 생긴다면 영구적인 안구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수포가 코 끝에 생긴다면 이는 눈에도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이다. 이럴 경우 피부과 의사는 즉시 안과 의사에게 환자를 의뢰할 것이다.



▾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포진 후 동통은 피부병변이 치유된 후 계속 또는 일정기간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때로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에서 더 흔하다. 어떤 의사들은 진통제를 쓰는 것이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수포에 세균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은 치유과정을 지연시킨다. 만일 치유가 진행되다가 통증과 발적이 더 생기기 시작하면 피부과 의사에게 환자를 돌려 보내야 한다.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합병증으로는 질환의 전신파급이 있다. 이것은 마치 수두 같다. 이것은 환자의 2-5% 정도에서만 일어나는데 다른 동반질환이 있거나 면역계통이 약화되어 있을 때 더 흔하다. 심지어는 내부 장기도 대상포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대상포진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흔히 진단은 수포의 모양과 편측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할 수 있다. 확실히 하기 위해 피부과 의사는 수포부위 피부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도 있다. 특정한 양식의 세포손상이 수포, 통증과 함께 있으면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만일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수분을 함유한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도 있다. 대개 결과는 수일 내에 나온다.

▶ 만일 대상포진에 걸린다면 어떤 경우에 다른 중병이나 면역기능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가?

만일 당신이 다른 내과질환이 있거나 AIDS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있었다면 피부과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상포진 치료는 다를 수 있다. 의사는 당신의 과거병력에 대해 물을 것이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흉부 X-ray나 혈액검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포진에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다.

▶ 대상포진은 전염되는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타인에게 옮겨갈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대상포진이 아니라 수두를 일으킨다. 대상포진은 수두보다 훨씬 전염성이 약하다. 수포가 터진 상태의 대상포진 환자가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환자나 이미 이환상태에 있는 환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질 때 전염될 수 있다. 신생아나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암환자처럼 면역저하 상태인 사람은 전염될 위험이 크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대상포진 환자는 꼭 필요하지 않는 한 별로 입원시키지 않는다.

▶ 흉터가 많이 남는가?

대개 심하게 앓은 사람-예를 들어 면역기능이 약했던 사람, 노인, 또는 수포가 감염되었던 사람들-에서만 흉이 남는다.

▶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은 수 주 내에 자연치유되고 재발하지 않는다.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주로 진통제와 냉압법(수포를 건조시키기 위한)을 쓴다. 캡슐로 된 항바이러스 제제(acyclovir)는 심한 환자-예를 들어 눈을 침범했다거나-나 면역기능의 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흔히 처방한다. Acyclovir는 하루에 다섯 번 투약한다. Acyclovir를 처방받은 환자의 약 2%에서 두통을 호소할 수 있고 간혹 위부 불쾌감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다. 발병 후 일찍 약을 먹을수록 더 좋다.

대상포진 초기인 경우 때때로 병이 중단될 수도 있다. 나중에 먹을수록 통증은 감소시킬 수 있을지라도 덜 효과적이다. 이 약이 포진 후 동통을 예방하지는 않는 것 같다.

Corticosteroid는, 때때로 acyclovir와 병용하여, 눈에서처럼 심한 감염이거나 심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효과적이다.

포진 후 동통은 밤에는 항우울제로, 낮에는 수시로 진통제를 줌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고추 추출물인 capsaicin을 함유한 연고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연고는 하루에 3-4회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바른다. 이것이 피부로부터 통증을 완화시키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유발한다.



치료전



치료후

사진으로 보는 성지순례

31. 므깃도



BC 4000년 으로부터 BC 6세기에 이르기 까지 이스라엘 최고의 요새로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도시이다. 므깃도는 이집트와 다메섹을 거쳐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해변의 길' (Via Maris) 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동서남북으로 사통팔달 할 수 있는 곳이어서 20회 이상의 국제 전쟁을 치루었던 곳이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 도시가 헬라어로 음역되어 '아마겟돈' (Armageddon)으로 등장하는데, 종말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계 16:16)은 우연이 아니다.

이 도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이집트 카르낙 신전 벽면에 부조되어 있는 투투모스 3세의 승전 기록인데, 그는 BC 1468 년 므깃도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왕이었음을 자랑하고 있다.

성경에서도 이 도시는 여호수아에 의해 점령되지 못할 만큼 강한 가나안의 요새였으며 (삿 1:27 ~ 28), 아마도 다윗에게 정복된 것으로 여겨진다. 솔로몬에 이르러 므깃도는 견고하게 수축되어 가장 강력한 북방 요새가 되었다 (왕상 9:15 ~ 19), 특히 솔로몬이 세운 마병장과 기병대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순사적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으며, 국제로를 장악하여 국제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므깃도는 BC 923년에 이집트의 시삭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아합 왕에 의해 재건 되었다. BC 609년에 요시아 왕은 이곳에서 이집트의 느고 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왕하 23:28 ~ 30). 그후 이곳은 폐허로 남아 있게 되었다. 1917년 영국의 알렌비(Allenby)장군이 터어키군을 패배 시켜 승리로 이끈 곳도 므깃도였다.



므깃도는 1925-39년에 시카고 대학의 동양 연구소(Oriental Institute)에 의해 발굴되었다. 또한 1960년 니가엘 야딘(Yigael Yadin)도 발굴하였다. 이곳은 주전 3000년 부터 큰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곳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었던 산당(High Place)식 신전을 발굴하였고, 또한 솔로몬 때 건설한 성벽, 성문, 관저들도 발굴되었다.

므깃도에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병장(Solomon's Stables)'이다. 솔로몬은 그 당시 군사력의 상징인 기병대를 육성하여 '병거성(City of Chariots)'과 '마병의 성(City of Horsemen)'들을 건설하였다. 므깃도는 이러한 병거, 마병성의 하나 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서 발굴된 솔로몬 시대의 성문은 그 이전의 구조와 다른 자형

(字形)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맞는 성문을 고안해 낸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이곳에서 발굴된 마병장에는 말들의 고삐를 매어 놓았던 구멍이 뚫린 돌들이 말구요와 함께 늘어서 있는 큰 장소를 발굴하였다. 약 450마리 정도의 말과 150대의 병거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이며, 중앙에는 말에게 물을 먹이던 큰 물통도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솔로몬의 마병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 발굴된 지층은 솔로몬 왕 때의 주거 층이 아니라, 이보다 약 100년 후 아합왕 때의 것이다.(BC 869-850) 므깃도는 시삭에게 파괴되었다가 아합때 복구되었었다. 그러나 아합왕 때의 마병장은 그 이전 솔로몬 때의 것 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규모도 비슷한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로 생각된다.

므깃도에서 발굴된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당시의 발전된 공업 기술을 볼 수 있는 우수한 수로 장치의 발견이다.

큰 통로가 바닥까지 내려 있고 그 통로의 끝에서 바위 구멍을 뚫고 도시 밖의 샘으로부터 도시 내부로 끌어 들이도록 되어 있다. 밖의 샘 입구는 포위하고 있는 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흙으로 덮여 있다. 이것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잘 보관되어 있다.

32. 다볼산



갈릴리 남쪽 이스라엘 골짜기에 우뚝 솟아 있는 다불산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부터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였다. 스블론 땅의 가장 대표적인 산 (신 33:19) 이었던 다불산은 BC 1125 년 여사사 드보라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900승의 철병거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삿 4:4 ~ 14)

이 산은 기드온과 미디안 사람과의 격전지이기도 하다 (삿 8:18). 갈릴리 산지와 갈멜산 혹은 길보아 산을 사이에 두고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골짜기 한 가운데 우뚝 솟은 이 산은 모레산 (삿 7:1)과 근접한 대표적인 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지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 산은 예수의 변화산 (Transfiguration, 마 17:1 ~ 8, 막 9:2 ~ 8, 눅 9:28 ~ 36) 으로 알려져, 4세기에 이미 변화산 수도원이 세워져 수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 (AD 340)는 예수의 변화산으로 다불산과 헤르몬산 두 곳을 언급하고 있으며, 보르도 (Bordeaus, AD 333)의 경주 예루살렘의 감람산을 일컫기도 하였다. 그러나 348년 예루살렘의 시릴 (Cyril of Jerusalem)은 최종적으로 예수의 변화 사건이 다불산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정짓고, 에피파니우스와 제롬의 지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 17장 1절의 '옛새 후'와 누가복음 9장 28절의 '팔일쯤'의 전승의 차이에 근거하여 지리적인 거리상 갈릴리로부터 헤르몬산까지의 길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초대교회의 전승이 다불산으로 정해져 오면서 이 산이 훨씬 중요한 산으로 기념되어 왔다.

4세기의 수도원과 6세기의 교회는 십자군 시대에 와서 더욱 확장되었으며, 예배실 정면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의 변화된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변화산 모자이크는 시내산의 변화산 수도원의 모자이크와 함께 매우 유명하다.

1183년 살라딘과 1263년 마멜룩의 침공 후 수도원이 파괴되어 폐허로 남아 있다가 1631년 프란시스칸이 다시 들어와 1873년 새 수도원이 건립되었다. 해발 562 m 의 다불산은 대형 버스로는 올라갈 수 없으며, 산 밑의 벤츠 리우진을 타고 올라 가게 되는데 아슬아슬한 가파른 경사의 S 자 길을 따라 오르내리게 되어있다.

33. 갈멜산



"머리는 갈멜 같고" (아 7:5), "해변의 갈멜같이" (렘 46:18, 사 33:9), 아름다움을 노래할 때마다 등장하는 해발 482 m의 이 산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머리산' (Holy Headland)이라 불리었다. BC 4 세기의 헬라인들은 이 산을 '거룩한 제우스의 산'이라 불렀으며, AD 1 세기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하였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Tacitus)는 이 산을 가리켜 "동상도 신전도 없이 오직 제단과 예배만 있는 산이 있는 곳" 이라 하였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하이파 (Haifa) 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하이파만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 남동쪽으로 길게 뻗은 약 25 Km 가량의 산맥으로, 종교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산으로 BC 860년 아합왕때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종교적 중심지였다.

850명이나 되는 사제들에 의해 이방의 종교는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는 이들과 맞대결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름 하였다 (왕상 18:1 ~ 40)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번창하였던 예수 당시의 제사장 숫자가 약 480명 정도였음에 비교한다면 기원전 9세기의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내에서 얼마나 극성을 부렸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 질서를 세웠으며, 종교적 위기로부터 구출하였다.

영국의 신학자 로울리 (H.H. Rowley)는 "모세 없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태어나지 못하였더라면, 엘리야 없이 그 종교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풍전등화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돌아 불꽃을 다시 일으킨 자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이다.

갈멜산 꼭대기에는 1868년에 세워진 '므흐라카' (Muhlaka, 불의제단)라 불리우는 카르멜 수도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은 본래 십자군의 성채가 있었던 곳으로 수도원 옥상에 서면 지중해 쪽 (서쪽) 뿐 아니라, (왕상 18:43 ~ 44), 이스라엘 평원 (북동쪽), 사마리아 산지 (남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왕상 18:40, 22:39), 입구의 벽면에 있는 갈멜산 사건의 부조는 눈여겨 관찰해 볼 만하다. 교회 뜰에 세워진 칼을 들고 서 있는 엘리야의 석상은 보는 이들에게 신앙을 재무장 하도록 요청하는 듯하다.



북한에서 온 편지

두만강을 따라 이어지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에는 모든 통행자들과 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검문 검색 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탈북자 체포를 위한 특무원 150명이 중국으로 파견 나와서 중국 공안원들과 함께 자치주 전역에 걸쳐서 가가호호 탈북자 색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선, 도문, 개산툰, 지역의 교두(橋頭)에는 체포된 탈북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트럭에 가득 실어 북한으로 강제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두만강다리에서 뛰어 내려 투신자살하기도 합니다.

마치 개, 돼지를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밭길에 차이면서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소리, 몽둥이로 얻어맞고 지르는 비명소리, 아비규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공안원이나 북한특무들은 탈출한 25명의 대한 복수를 마치 이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주린 배를 채우려고 강을 건너 온 것이 죄가 되어 지금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숨겨주거나 보호하는 자들도 엄중한 처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검문검색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업체나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불순한 무리로 보고 매일 파출소에서 나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난 교회(삼자교회) 까지도 공안원들이 들어 닥쳐 구석구석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문화 혁명 때를 방불할 만큼 하다고들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공안원(경찰)뿐만이 아니고 국경수비대(군인)까지 동원되었고 북한에서 파견 나온 특무들(안전부요원)이 가세해서 탈북자 색출작업이라는 명분아래 기독교인들 특별히 한국선교사들의 활동을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합니다.

이번 25명 탈출로 인해 중국, 북한 선교에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의 보호하심만 의지하면서 시간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19일에 보내온 편지



두만 강변을 가로질러 중국의 도문시와 북한의 남양시를 연결하는 다리. 다리의 청색부분부터는 북한경계선.

마주보는 곳이 북한 땅이며 함경북도 남양시.

지금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강제추방 당해서 이 다리를 건너가고 있다.

이 다리 건너 북한 땅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성경책과 위약품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전사들



예랑선교회에서 중국남방 OO지역에 세운 안족교회



선교사들의 선교지역

4월의 교회력

		7	성가대헌신예배	14		21	교사헌신예배	28	찬양예배	
			평양감사 민병석의 교회박해사건(1894) 서재필 독립신문 창간(1896)		주기철목사 순교(1944)				고종황제 금교령으로 교회 수난(1888)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으로 개칭(1951)	
1	성경쓰기	8		15	복심방 시작	22		29		
			감리교, 평양에서 의료선교사업 시작(1893) 맹인들을 위한 새빛 창간(1966)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목사 새벽기도회 시작(1906) 수원 제암감리교회 학살사건(1919)				기독교신문 창간(1942)	
2		9	거리청소	16		23		30		
			고종황제에게 신약공인역「성경」을 헌정(1906) 한글개역성경 중 구약 완역(1910)		디트리히 본회퍼 순교(1945)		이화여대 기독교학교 개설(1958) 최봉석목사 옥중 순교(1944)		김지평 순교(1868) 이화학당,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칭(1925)	최초의 도사경회가 정동교회에서 개최(1892)
3		10		17		24				
			수요일 예배 시작(1893)		광혜원 창립(1885) 장로교, 조선신학교 설립인가(1947) 신구교 공동번역 성경전서 발간(1977)		NCC실행위, 기독교회에 대한 통일교 침투방지책 토의(1972)		성 어거스틴 세례(387)	
4		11		18		25				
			마틴 루터 목사 안수(1507)		평양신학교(교장:채필근), 신사참배 순응하고 재개교(1940) 한국복은신보 창간(1960)				최초의 유아세례 시행(1886) 대한기독교학생회(KSCF) 전국연합회 창설(1948)	
5		12	교회환경미화	19		26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인천 도착(1885)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성회와 일본 동건에서 합동총회(1953)		조선신학교 개교(1940) 서울여자대학교 창립(1957)		조선예수 종교교육연구회 창설로 주일학교 토착화운동 본격화(1926)	
6		13		20		27				
			루터신학원(원장:지원웅) 창립(1964)		기독교청년회 발족(1921) 기독교박물관 개관(1948) 성공회, 한국인 최초 주교 이천환 임명(1965)					

길거리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세상에 떠도는 뜬 소문.

[동] 道聽道說(도청도설), 街談巷語(가담항어)



[출전] 『논어(論語)』 양화편(陽貨篇),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 『순자(荀子)』 권학편(權學篇)

[내용1]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道聽塗說]'은 덕을 버리는 것과 같다[德之棄也].

길거리에서 들은 좋은 말[道聽]을 마음에 간직하여 자기 수양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길거리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버리는 것[塗說]은 스스로 덕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좋은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다는 말이다.(논어)

[내용2] 대체로 소설이란 것의 기원은 임금이 하층민의 풍속을 알기 위해 하급 관리에게 명하여 서술토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즉 세상 이야기라든가 길거리의 뜬소문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道聽塗說]' 무리가 지어낸 것이다.(한서)

[내용3] 소인배의 학문은 귀로 들어가 곧바로 입으로 흘러나오고[口耳之學]' 마음속에 새겨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귀와 입 사이는 불과 네 치[口耳四寸].' 이처럼 짧은 거리를 지날 뿐이라면 어찌 일곱 자[七尺] 몸을 훌륭하게 닦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학문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배운 것을 금방 다른 사람에게 고하고 자기를 위해 마음속에 새겨 두려고 하지 않는다. 군자의 학문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지만 소인배의 학문은 인간을 못 쓰게 망쳐 버린다.(순자)

[원문] 街談巷說 必有可采. -- 『文選』與楊修書 /

小說家者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道聽塗說者之所造也 -- 『漢書』藝文志

[참고] 稗官文學(패관문학) - 패관(稗官; 지난날, 임금이 민간의 풍속이나 정사를 살피기 위하여 가담항설을 모아 기록하게 하던 벼슬아치)이 수집한 소문과 풍설에 패관의 창의와 윤색이 가미되어 민간의 가담과 항설 등을 주제로 한 일종의 문학 형태를 갖추게 된 설화 문학. 소설이란 말도 이런 의미에서 원래는 '패관(稗官:하급 관리) 소설'이라고 일컬었으나 나중에 그냥 '소설'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고려 중후기에 성행하였음.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제현의 『역옹패설』 따위

[註]**巷間, 村間, 俗間, 民間, 坊間, 閭巷, 世俗, 風間. **街 : 곧고 넓은 길. 巷: 좁고 구불구불한 길.

사행시

소망구역	성경쓰기
소...소망합니다.	성...성경쓰기가 시작됐다
망...망하지 않도록...	경...경기가 날 것 같다
구...구해주세요.	쓰...쓰라고 해서 쓰긴 쓰는데..
역...역시 구원의 하나님!	기...기도해두 잘 안되구....이이잉...

을
은
이
박
기
속
성
도

詩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혜원

당신을 처음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느낌,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동지를 잃은 새가
새 동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한 다발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를 ‘영국 요리’라고 한다. 영국에선 제멋대로 노는 것을 ‘프랑스 휴가’라고 꼬집는다. 술 마시고 허세부리는 것은 ‘네덜란드용기(Dutch courage)’다. 이웃사촌끼리 친하게 지내기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를 불문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도 노린내를 오랑캐 냄새라며 ‘되내(호취·胡臭)’라고 했다. 이에 뒤질세라 청나라 사람들은 고린내를 ‘고려취(高麗臭)’라고 빈정댔다. 피장파장이다.

영어 사전을 뒤적이면 네덜란드에 연관된 단어가 많이 나온다. 어쩐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뜻을 담고 있다. ‘더치페이’하는 점심은 ‘더치 런치’이며, 잔소리 많은 아저씨는 ‘네덜란드 아저씨’다. 이는 네덜란드가 영국과 경쟁적으로 해외진출에 열을 올리면서 약소국들에 피해를 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우리도 일본 사람을 한동안 ‘쪽발이’라고 불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신문은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을 ‘베를린 올림픽 이후 최대의 애국주의 전람회였다’고 혹평했다. 지금의 미국이 나치 독일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2002년 2월, 한국의 네티즌들도 ‘오노이즘(Ohnoism)’이란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 점잖게 미국에 한방 먹이고 있다. 오노이즘은 ‘2002 동계올림픽 직후 미국에서 일어난 반 양심운동으로 능청·뻔뻔·느끼를 3대 구호로 내걸고 일체의 규정을 거부·파괴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김동성선수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일본계 미국인 아폴로 안톤 오노(Ohno)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젊은이들이 이런 단어까지 만들었을까.

‘오노스럽다’는 말이 더 재미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 또는 인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긴 것도 형편없을 때 ‘오노스럽군요’라고 한단다. ‘오노 목에 금메달’이라는 속담은 ‘개발에 주석 편자’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싶다.

네티즌들은 ‘영삼스럽다’ ‘대중스러운’ ‘종필당하다’ ‘회창맞다’ ‘인제답다’는 말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다. 용례(用例)를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조지훈선생은 한국인의 유머에 대해 “기발하기보다 은근하고 심심한 승능같다”고 했지만 요즘 네티즌의 유머는 너무 기발하고 직선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업종별 거짓말

- ☆ 선생님 : 이걸 꼭 시험에 나온다!
- ☆ 웨딩 사진사 :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쁘네요~
- ☆ 중국집 주인 : 네! 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 ☆ 신인 배우 :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 ☆ 남대문 리어카 :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 ☆ 정치가 : 단 한 푼도 안받았습니다!
- ☆ 약장수 : 이 약 한번 잡슈봐! 팔다리어깨허리간장위장소장대장이 다~~~아~쉬원해져~~!
- ☆ 교장 선생님 :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 ☆ 엄마 : 대학가면 살 빠지니깐 지금은 부지런히 먹어~
- ☆ 연예인 : 그냥 선후배 관계예요.
- ☆ 비행기 조종사 :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 회사원 : 예~ 다 돼갑니다.
- ☆ 옷가게 주인 : 어머~언니 너무 예쁘다~

◎ 3월

1. 신앙서적 / “해피 데이즈” '레나 마리아' 지음
2. 교구.구역장 헌신예배 / 3월 3일
* 사회 : 최정희 권사 기도 : 최은주 집사
3. 특별새벽기도회 / 3월 4일~9일
* 주제 : 내가 일어서리라
4. 문서발간위원회 헌신예배 / 3월 17일
* 사회 : 김미진 집사 기도 : 이종희 권찰
5. 종려주일 및 성찬식 / 3월 24일
* 성찬위원 : 김형진집사 배병철집사
6. 고난주간 금식기도 / 3월 25일~30일
7. 제 7차 새벽 구약성경 통독대회 / 3월 25일~30일
* 범위 : 예레미야애가~말라기
8. 부활절예배 / 3월 31일 오전 11시
9. 율동대회 / 3월 31일 오후 5시

지역행사

☞ 당진천 벚꽃길 자전거 타기 청소년 대행진

일시 / 4월 21일 (일) 10:00 ~ 12:00

출발 / K-마트앞 공용주차장

대상 / 군내 초중고생

☞ 환경그림 그리기 청소년 사생대회

일시 / 4월 21일(일) 13:30 ~ 16:00

장소 / 남산공원 팔각정 주변

대상 / 군내 초중고생

☞ 에너지 절약 마당극 "바람개비" 공연

일 시 / 2002년 4월 22일(월) 10:30 ~ 12:00

장 소 / 신성대 정보관 대강당

공연기획 / 큰들문화예술센터

대 상 / 군내 어린이집 원아 및 초등학생 500여명

관 랑 료 / 무료

1. 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당진군 산림조합이 지난 20일 당진읍 탑동사거리에 나무시장을 개장했다. 3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 개장되는 나무시장은 산림수종, 유실수, 관상수 등 5만여주와 잔디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나무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묘목의 가격은 26일 현재 감나무 2,500원(大 7,000원), 매실 3,000원, 복숭아 2,000원(大 5,000원), 사과 3,500원, 자두 2,500원 등이며 묘목의 가격은 수급량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값싸고 좋은 나무를 공급해 푸른 당진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나무시장을 개설했다”며 “묘목의 신선도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땅에 가식한 채로 판매하며 산림조합에서 개설한 만큼 나무의 품질을 보증한다”고 말했다.

2. 삼교호 함상공원 개장 - 동양최초의 군함 테마파크 -

- ▶ 개장일 : 2002년 4월 11일 15:00
- ▶ 위치 :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삼교호 관광지내
- ▶ 주요시설 : 상륙작전함, 구축함, 입체영상관
- ▶ 개장시간 : 하절기 10:00~22:00
동절기 10:00~20:00
- ▶ 입장요금 : 구분 개인 단체 비고
 대인 5,000원 4,000원
 소인 4,000원 3,000원 만36개월이상~고등학생
*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3,000원

▶ 해군·해병의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동양최초의 군함 테마파크가 삼교호관광지내 함상공원에 선보입니다. 대양을 호령하던 우리의 자랑스런 군함이 명예로운 퇴역과 함께 삼교호 함상공원에서 해군과 해병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으로 놀라운 변신을 하였습니다.

3. 농업인 상담소 운영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상담소(3개소)가 오늘(4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여망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촌 현장의 문제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농업인상담소가 98년 10월 폐쇄된 후 3년5개월 만에 부활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설치, 운영되는 농업인상담소가 농업인의 영농상 문제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농업 정보 교류의 사랑방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 남부상담소(합덕읍 운산리, 350-3896) : 합덕읍,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 관할
상담소장 : 최정욱(전 식량작물담당), 상담요원 : 인유진
- 북부상담소(고대면 용두리, 350-3897) :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관할
상담소장 : 남상문(전 원예개발담당), 상담요원 : 고광균
- 중부상담소(송악면 기지시리, 350-3898) : 송악면, 송산면, 신평면, 당진읍 관할
상담소장 : 안성환(전 환경농업담당), 상담요원 : 윤기오

▲ 신나는 퍼즐 ▲

<가로 열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세로 열쇠>

- 저수지나 수로에 물의 양을 조절하는 물문을 무엇이라 하는가?
-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OO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 11:3)
- 삼손이 나귀턱뼈를 무기로 사용하여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인 장소는? (삿 15:7)
-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OO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로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 18:6)
-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를 깎았던 곳은? (행 18:18)
-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간사한 것이 없는 자’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요 1:47)
-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로서 히스기야 왕에 의하여 성전의 동문지기로 임명된 사람은? (대하 31:14)
- OO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 5:5)

- 에브라임의 아들이며 베렛의 아버지는? (대상 7:20)
- 이스라엘의 성막 안쪽에 있으며, 가장 거룩한 영역은? (출 26:33)
- 너희의 OO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눅 21:19)
- 기드온이 지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쳤던 산 이름은? (삿 7:1)
-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 나오게 했던 곳을 므리바 혹은 OO라 부른다 (출 17:6~7)
-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며(창 10:15)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쫓아낸 민족은? (수 3:10)
-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OOOO이었다 (마 20:2)
- 교법사로서 아볼로와 함께 바울의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한 사람은? (딤후 3:13)
-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무슨 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는가? (겔 1:3)
-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칭찬했던 로마에 사는 성도는 누구인가? (롬 16:10)
- 기술론의 아들이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은? (민 34:21)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OO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약 1:27)

♣ 누구든지 정답을 작성하여 4월 28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 ♣ 1. 전자우편 : hagape@netsgo.com (교회), kmjagape@borahome.net (위원장)
- 2. 일반우편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우) 343-800 순복음중앙교회 문서발간위원회 앞

☎ 제10호 당첨자 시상 - 권복순집사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 문서발간위원회 ▲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 서 기 : 이종희 권찰
- 회 계 : 구옥순 권찰
- 위 원 : 박순남 집사
손현숙 권찰
윤희자 전도사
박기숙 성도
- 편 집 : 한승권 목사
- 도우미 : 김진숙 선생

